

동북1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019. 11. 29. (금)

(주) 소셜밸런스

제 출 문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동북1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1.

- 용역수행기관 (주) 소셜밸런스
- 책임연구원 이영동
- 연구원 서화진, 신상선, 정명우, 황선웅
- 연구보조원 이태용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1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1
나. 조사 범위 및 방법	1
다. 조사 대상 및 특성	4
2. 동북1권 지역 현황	6
3. 동북1권 시민사회 특징 및 현황	13
가. 형성과 발전	13
1) 지역사회의 형성	13
2) 시민사회의 형성	16
3) 자치구별 시민사회의 의제 및 활동 흐름	24
4) 최근의 시민사회 흐름	28
5) 지역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	36
6) 민관파트너십	38
나. 동북1권 시민사회 현황	45
1) 지역단체 현황	45
2) 네트워크 현황	55
3) 활동가 현황	59
다. 동북1권 시민사회 생태계 주요 특징	61
1) 주민 참여도	61
2) 주민 참여도에 대한 활동가 인식	64

3) 지역 시민사회 특성에 대한 활동가 인식	68
4) 활동가의 활동 환경	69
라. 권역 내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 활동	71
4. 동북1권 시민사회 지원기관 및 자원 현황	74
가. 시민사회 지원기관 현황: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 민간재단 등	74
나. 시민사회 자원 현황: 공유 공간과 자원 현황	76
5. 동북1권 NPO지원센터 설립 수요와 요구	82
가. 동북1권 NPO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 수요	82
나. 동북1권 NPO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와 요구	91
6. 결론 및 제언	95
Appendix	97
가. 참고문헌	97
나. 설문지	98
다. FGD/워크숍	104

표목차

〈표 1-1〉	조사 대상의 성별에 따른 인원수 및 비율	4
〈표 1-2〉	조사 대상의 연령대에 따른 인원수 및 비율	5
〈표 1-3〉	조사 대상의 활동 지역에 따른 인원수 및 비율	5
〈표 2-1〉	동북1권 인구현황 및 구분	7
〈표 2-2〉	군집분석에 의한 자치구 유형분류	8
〈표 2-3〉	지역 특성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12
〈표 3-1〉	동북1권 주요의제 워크숍 - 자치구별 결과	37
〈표 3-2〉	자치구와의 협력에 대한 활동가 인식	40
〈표 3-3〉	성동구 내 민관파트너십 현황 조사 결과	41
〈표 3-4〉	광진구 내 민관파트너십 현황 조사 결과	43
〈표 3-5〉	동대문구 내 민관파트너십 현황 조사 결과	44
〈표 3-6〉	동북1권 비영리민간단체 등 현황	45
〈표 3-7〉	서울시 내 생활권별 인구수 및 비영리단체 수	46
〈표 3-8〉	성동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50-51
〈표 3-9〉	광진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52-53
〈표 3-10〉	동대문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54
〈표 3-11〉	성동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현황	56
〈표 3-12〉	광진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현황	57
〈표 3-13〉	동대문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현황	58
〈표 3-14〉	동북1권 활동가 경력기간별 현황	59
〈표 3-15〉	동북1권 활동가 근무형태별 현황	59
〈표 3-16〉	동북1권 활동가 고용형태별 현황	60
〈표 3-17〉	동북1권 기부경험률 및 기부형태	62
〈표 3-18〉	동북1권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63
〈표 3-19〉	동북1권 자원봉사 등록률 및 참여율	64
〈표 3-20〉	주민참여도 변화에 대한 활동가 인식 (FGD 결과)	68
〈표 3-21〉	지역 시민사회 특성에 대한 활동가 인식 (FGD 결과)	69
〈표 3-22〉	활동가의 활동 환경에 대한 인식 (FGD 결과)	70
〈표 4-1〉	성동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74
〈표 4-2〉	광진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75
〈표 4-3〉	동대문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76
〈표 4-4〉	성동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77-78
〈표 4-5〉	광진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79

〈표 4-6〉	동대문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79-80
〈표 4-7〉	동북1권 시민사회 활용가능 자원 (워크샵 결과)	81
〈표 5-1〉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87
〈표 5-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FGD 결과)	90
〈표 5-3〉	활동가가 바라는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FGD 결과)	92
〈표 5-4〉	활동가가 바라는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워크샵 결과)	94

그림목차

〈그림 1-1〉	조사 및 분석방법	2
〈그림 3-1〉	성동구 시민사회 의제 및 활동 흐름	25
〈그림 3-2〉	광진구 시민사회 의제 및 활동 흐름	26
〈그림 3-3〉	동대문구 시민사회 의제 및 활동 흐름	27
〈그림 3-4〉	최근 성동구의 시민사회 흐름	30
〈그림 3-5〉	최근 광진구의 시민사회 흐름	33
〈그림 3-6〉	최근 동대문구의 시민사회 흐름	35
〈그림 3-7〉	시민사회 단체와 자치구 간의 협력 정도	38
〈그림 3-8〉	자치구와의 협력 시 어려운 점	39
〈그림 3-9〉	동북1권 공익단체 재원 현황	47
〈그림 3-10〉	자치구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금액	48
〈그림 3-11〉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 설립년도 & 2010년대 상세	49
〈그림 3-12〉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수	49
〈그림 3-13〉	3년 이내 단체 회원 및 시민 참여 증가 여부	66
〈그림 3-14〉	시민 참여 증가 형태	66
〈그림 3-15〉	시민 참여 방해 요인	67
〈그림 3-16〉	활동가/단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 필요성	71
〈그림 3-17〉	공적교류 및 사적교류 현황	72
〈그림 3-18〉	활동가 간 교류에 방해되는 요인	73
〈그림 5-1〉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	83
〈그림 5-2〉	활동가 본인 스스로의 전문성 인식	83
〈그림 5-3〉	소속 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수준	84
〈그림 5-4〉	소속 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내용	85
〈그림 5-5〉	역량 강화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	85
〈그림 5-6〉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	86
〈그림 5-7〉	동북1권역 내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성	87
〈그림 5-8〉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	88
〈그림 5-9〉	동북1권역 내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중요한 것	89

보고서 요약

1. 조사개요

○ 목적

본 조사는 동북1권 NPO의 현황과 활동가들의 욕구를 분석하여 권역NPO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적합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사회 의제, 지역/시민사회 현황과 발전 과정, 동북1권 내 협력/연대 활동, 시민사회 지원기관, 공유공간 및 자원들을 파악
- 지역 시민사회 수요 파악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지원에 대한 욕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
-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권역NPO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 및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범위 및 방법

- 지역적 범위: 동북1권에 포함되는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에 집중
- 대상적 범위: NPO, NGO 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개인
- 조사방법: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Mixed-strategy 방식으로 진행
- 조사기간: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영동 (소셜밸런스)

공동연구원: 서화진 (푸른사람들), 신상선(성동청년플랫폼), 정명우(광진시민허브)

황선용 (소셜밸런스)

연구보조원: 이태용 (소셜밸런스)

2. 동북1권 지역 현황

- 동북1권은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하여 경제적 활력이 낮고, 교통기반시설 부족하여 타 생활권에 비해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 재개발로 인한 인구 및 공간 변화 등 지역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혁신 동력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동북1권은 KAIST,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일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권역 내 다수의 종합대학 등이 위치해있어, 이와 관련된 자원이 풍부함

3. 동북1권 시민사회 특징 및 현황

가. 형성과 발전

- 동북1권에서는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지역 자산화 사업’ 및 ‘포괄적 연대계획’(또는 네트워크)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성동구에서는 자산화사업, 포괄적연대계획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광진구는 공간자산화를 통하여 공간과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게 되면서, 주민과 연계된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 힘을 응축시켜 새로운 지역활동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동북1권 내 자치구들은 공통적으로 활동가 양성, 자산화 등을 통한 공간 및 재원 마련, 시민사회 및 주민과의 네트워크 및 소통의 확대, 주민참여 및 권한 확대 등의 아젠다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
- 동북1권 단체의 대부분인 84% 정도가 자치구와 보통 수준 이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비효율적 행정 및 소통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활동 자율성 침해에 대한 염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동북1권 시민사회 현황

- 시민사회 단체의 규모 측면에서 동북1권은 절대적 수치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인구 수에 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대적 규모 측면에서도 다른 생활권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들의 재원에 대한 서베이 결과, 지자체, 기업, 재단 등으로부터의 지원사업, 정부보조금 등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자치구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대부분(44.4%) 1천만원 이하였음
- 활동가 세대가 전반적으로 고연차화 되어 있고, 신규 활동가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개인활동가의 비중이 높고, 개인활동가 대부분이 자원활동 또는 비상근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다. 동북1권 시민사회 생태계 주요 특징

- 공공데이터에 드러나고 있는 동북1권 주민참여도를 확인한 결과, 참여율과 참여형태는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동북1권 활동가들은 공익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활동 주체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선 늘어나는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수용할만한 공간 및 인프라를 보완하고, 보다 시민 친화적인 의제와 참여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동북1권은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시민사회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북1권 활동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낮고, 후배 활동가의 신규 유입 및 양성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라. 권역 내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 활동

- 동북1권 권역 내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 활동은 자치구별 기초조사를 통해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네트워크 현황 이외에는 드러나 있는 것이 없었고, 서베이를 통해 활동가 및 공익단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 활동가 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약 40%는 공식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는 교류를 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에 더해, 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를 할 기회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4. 동북1권 시민사회 지원기관 및 자원 현황

가. 시민사회 지원기관 현황: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 민간재단 등

- 공공데이터 또는 행정 기관을 통해서 자치구 단위의 시민사회 지원기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없었고,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자치구별 지역 기초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을 확인하였음

나. 시민사회 자원 현황: 공유 공간과 자원 현황

- 자치구별 지역 기초조사를 통해 자치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 및 공유공간 자원들을 확인하였음
- 그 밖의 시민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동북1권 통합워크숍을 통해 파악해보았고 자치구별로 공간(인프라), 사람, 재원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함
 - 자치구 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선배활동가의 공유, 타 자치구의 사례에 대한 배경 지식 및 노하우 등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5. 동북1권 NPO지원센터 설립 수요와 요구

가. 동북1권 NPO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 수요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북1권 활동가들은 대체로 본인의 활동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원하고 있음
- 동북1권 공익단체들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활동가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참여를 위한 비용/시간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북1권 활동가들은 자산화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동가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내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주민의 권한과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활동 공간, 재정 지원, 네트워킹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지역 내 소통 창구로서 단체 간 교류를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냄

나. 동북1권 NPO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와 요구

- 동북1권 활동가들은 권역NPO지원센터가 활동가들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주체 간 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었음
- 동북1권 활동가들은 활동가의 인건비 및 복지지원, 활동가 발굴/양성/교육 체계 구축, 지역 기금 마련, 공간 및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을 공통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무엇보다 활동가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1. 서론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NPO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동북2권역과 동남권역에 각각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2022년까지 이를 포함한 5개 권역에 권역 단위의 NPO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권역NPO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NPO의 현황과 활동가들의 욕구 등을 확인하는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본 조사는 동북1권 NPO의 현황과 활동가들의 욕구를 분석하여 권역NPO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적합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의제, 지역/시민사회 현황과 발전 과정, 동북1권 내 협력/연대 활동, 시민사회 지원기관, 공유공간 및 자원들을 파악하고자 함
 - 본 조사의 지역 시민사회 수요 파악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지원에 대한 욕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하고자 함
 -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권역NPO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나. 조사 범위 및 방법

- 본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시가 생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동북1권에 포함되는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에 집중하여 진행됨
 - 현재 서울시의 생활권역 구분에 따르면,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가 동북1생활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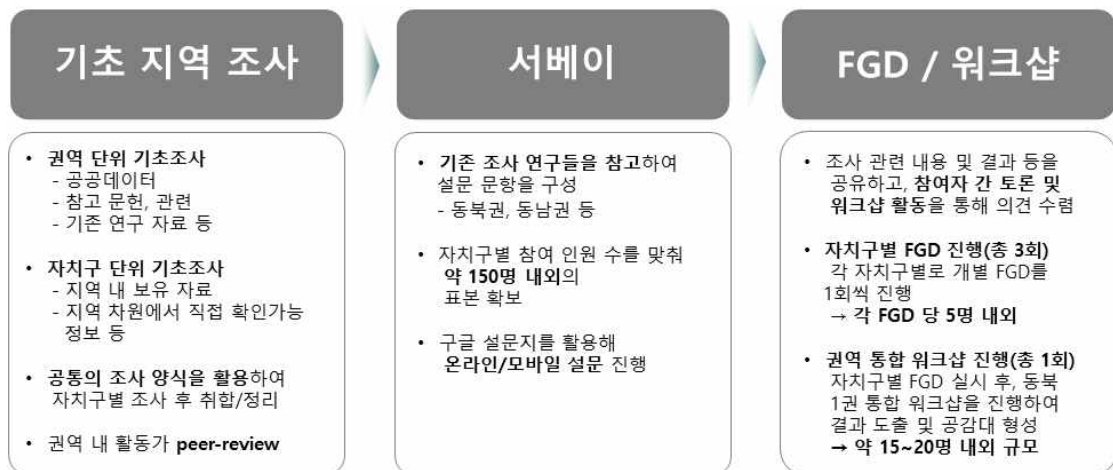
- 중랑구의 경우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구 차원의 NPO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인 상황으로, 향후 동북1권 NPO지원센터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우선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지원체계를 보유한 중랑구 보다는 나머지 3개 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본 조사의 대상적 범위는 NPO, NGO 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됨

- 조사의 대상을 조직에서 개인까지 구분하지 않고 살펴본 것은, 현재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활동이 반드시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본 조사에서는 권역NPO지원센터 설립이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중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본 조사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Mixed-strategy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및 분석 방법은 <그림 1-1>과 같이 문헌 및 자료 검토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초 조사, 서베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양적조사, 심층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 이하 FGD)와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질적조사 등으로 진행되었음

<그림 1-1> 조사 및 분석방법



○ 기초조사

동북1권의 지역 및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 현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 단위 및 자치구 단위의 지역 기초조사를 시행함

- 권역 단위의 기초조사는 아래의 3가지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됨
 - ① 서울시 공공데이터와 같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
 - ② 동북1권 시민사회와 관련된 각종 참고 문헌의 검토
 - ③ 동남권 및 동북2권 NPO지원체계 연구 등 기존 연구 자료의 검토
- 자치구 단위의 기초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확인 가능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함
-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기본 현황 통계, 시민사회가 형성된 역사와 배경, 지역 내 단체 및 네트워크 현황, 공유공간 자원, 민관 파트너십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권역 내 활동가 peer-review: 1차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연구진이 3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간에 조사한 내용을 리뷰하고 조사의 방향성이나 보완해야 할 지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역 기초조사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 양적조사

양적조사 방법으로서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

- 설문지는 동남권, 동북2권에서 진행된 조사 등 관련된 기존 조사·연구의 설문 문항들을 검토 및 재구조화하여 구성하였음
 - : 세부적으로 활동가 개인 및 소속 단체에 대한 일반 현황, 활동가 역량에 대한 인식, 공익활동 지원 필요성 인식, 권역 및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설문지 세부내용은 appendix 참조)
- 서베이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동북1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44명의 활동가가 응답하였음

○ 질적조사: FGD & 워크숍

- 본 조사에서는 동북1권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만나 현재 그들이 처한 활동 환경을 확인하고, 권역NPO지원체계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질적조사를

진행하였음

- 우선 활동가들이 모여 제안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FGD를 각 1회씩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 및 활동가의 활동 환경, 그리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지원에 대한 욕구 등을 각 자치구별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FGD를 진행한 이후에는, 동북1권 활동가들이 모두 모이는 통합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동북1권의 주요 의제와 자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호간의 연결지점을 확인하였고, 권역NPO지원센터가 가져가야 할 역할에 대해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비교해보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다. 조사 대상 및 특성

- 조사 대상은 동북1권역에 속하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서베이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사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보면, 전체 활동가 144명 중 남성이 58명(40.3%), 여성이 86명(59.7%)으로 6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였음

〈표 1-1〉 조사 대상의 성별에 따른 인원수 및 비율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인원 수	58명	86명	144명
백분율	40.3%	59.7%	100%

- 조사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40대가 53명(3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5명(31%), 30대가 31명(22%)로 나타남

〈표 1-2〉 조사 대상의 연령대에 따른 인원수 및 비율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인원수	12명	31명	53명	45명	3명	144명
백분율	8%	22%	37%	31%	2%	100%

- 조사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활동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성동구가 66명(45.8%)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가 24명(16.7%)로 가장 적었음

〈표 1-3〉 조사 대상의 활동 지역에 따른 인원수 및 비율

구분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합계
인원수	66명	54명	24명	144명
백분율	45.8%	37.5%	16.7%	100%

2. 동북1권 지역 현황

- 동북1권의 지역현황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및 관련 지역 연구 등 공개된 정보들과, 활동가 FGD에서 각 자치구 활동가들이 지역 특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등, 동북1권의 전반적인 현황과 각 자치구별 현황을 나누어 확인하였음
- 동북1권은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하여 경제적 활력이 낮고,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타생활권에 비해 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재개발로 인한 인구 및 공간 변화 등 지역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혁신 동력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동북1권은 KAIST,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일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권역 내 다수의 종합대학 등이 위치해있어, 이와 관련된 자원이 풍부함

1) 동북1권의 특성

- 「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에서는 서울시를 5대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하였음. 동북권은 5대 권역생활권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이 가장 넓은 권역으로 지역의 성격에 따라 동북1권과 동북2권으로 구분하고 있음
- 동북1권은 1911년부터 운영된 청량리역, 왕십리역 근방의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하여, 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수차례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의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등 4개의 자치구로 분화되었음
- 동북1권은 자연과 역사자원이 풍부한 주거 기능 위주의 생활권으로, 약 67km²(서울시 면적의 11%)의 면적에, 약 145만명(서울시 인구의 14.4%)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음

〈표 2-1〉 동북1권 인구현황 및 구분

구분	면적* (km ²)	인구** (명)	행정동* (개동)	세대수** (세대)	세대당인구** (인/세대)
동북1권	66.64	1,447,182	62	645,693	2.17
성동구	16.86	311,290	17	136,466	2.22
광진구	17.06	368,337	15	164,173	2.15
동대문구	14.22	363,779	14	163,606	2.12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행정구역(구별) 통계(2018년 기준)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주민등록인구(구별) 통계(2019년 3/4분기), 세대수 및 세대당인구는 외국인 제외

- 동북1권은 동남권과 서남권에 비해 사업체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종사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밀집해 있고 고용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율이 13.6%로 서울시 전체에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동북1권은 공원녹지는 인당 11.8m²로 서울시 평균인 인당 15.1m²보다 부족하고, 공공도서관에 비해 문화·체육 시설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복지시설의 경우 동북1권 내 자치구별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
- 동북1권은 KAIST,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일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권역 내 다수의 종합대학 등이 위치해있어, 이와 관련된 자원이 풍부함
- 신상영, 맹다미(2011)에 따르면, 서울의 자치구를 지역발전 측면에서 〈표 2-2〉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동북1권에 속하는 모든 자치구는 경제적 활력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었고, 성동구는 경제적 활력 외에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복지 및 형평성 등 나머지 성과 영역에서는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에 근접한데 비해,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모든 성과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성동구가 속하는 지역유형 B1의 경우, 특성화된 지역 중심 거점 육성을 통해 고용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편리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진구와 동대문구가 속하는 지역유형 B2의 경우,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접근성과 연계성 제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침체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및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군집분석에 의한 자치구 유형분류

지역유형		자치구
A1	경제적 활력이 높지만 안정성이 문제인 도심지역	중구
A2	경제적 활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과영역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룬 지역	종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B1	경제적 활력은 낮으나 다른 성과영역 (복지 및 형평성, 안정성, 편리성, 쾌적성)에서 균형발전을 이룬 지역	용산구, 성동구 , 마포구, 강서구, 성북구, 동작구, 양천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은평구
B2	모든 성과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특징을 보이는 지역	광진구, 동대문구 , 서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출처: 신상영, 맹다미 (2011).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정책리포트(89), 1-20

2) 성동구 생활권 특성

- 성동구는 4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성수’, ‘마장·용답’, ‘왕십리·행당’, ‘금호·옥수’ 지역생활권이 포함되어 있음
- 성수 지역생활권은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강과 서울숲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생활권임
 - 준공업지역의 인쇄, 자동차, 신발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30년 이상 5층 미만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이 다수 분포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음

- 마장·용답 지역생활권은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양호하며 중랑천에 접하여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가 큰 생활권임
 - 대표적인 판매시설인 마장축산물시장, 장안평자동차시장 등이 입지하고 있어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한편, 대학이 인접해 있어 20대 인구 및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 5층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인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망을 지니고 있음

- 왕십리·행당 지역생활권은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교통의 거점이자 행정교육문화의 중심인 생활권임
 -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높으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노후된 5층 미만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관련 정비예정구역도 7개소가 있음

- 금호·옥수 지역생활권은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을 포함하며 한강에 접하고 거주환경의 변화가 큰 공동주택 중심의 생활권임
 - 30대와 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높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녹지지역이 많아 1인당 공원 면적이 높지만 노후 건축물이 많고 주차장과 복지시설 비율은 낮음

3) 광진구 생활권 특성

- 광진구는 4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중곡’, ‘화양·능동’, ‘자양’, ‘구의’ 지역생활권이 포함됨

- 중곡 지역생활권은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마산과 아차산을 포함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생활권임
 - 지하철 5, 7호선 등 교통 접근성이 좋은 편이나 5층 미만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
 - 전통시장과 특화거리가 위치한 것과 더불어 현재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

가 조성 중임

- 화양·능동 지역생활권은 군자동, 능동, 화양동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대학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활권임
 - 대규모 공원 및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으로, 20, 30대 인구가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5층 미만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신축 건물인 반면, 대규모 시설물들은 주로 30년 이상임
- 자양 지역생활권은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에 접하고 건대입구역, 특화 시장 등 다양한 상권을 보유한 생활권임
 - 광역도로망과 지하철역의 접근이 뛰어나고 독섬한강공원, 건대 로테오거리 등 광역 여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위주로 분포되어 있음
- 구의 지역생활권은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과 아차산에 인접해 뛰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는 생활권임
 - 동서울터미널, 강변테크노마트와 아차산 등 지역 명소가 위치해 있고, 건설업 종사자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임
 - 한강에 인접한 광장동에는 아파트가 다수 있는 반면에, 아차산 주변에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등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4) 동대문구 생활권 특성

- 동대문구는 4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장안', '전농·답십리', '청량리', '이문·휘경·회기' 지역생활권이 포함됨
- 장안 지역생활권은 장안1동, 장안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랑천에 인접해 있고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생활권임
 - 장한평역과 장안동사거리 일대에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어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세대당 인구수가 동대문구 평균보다 높고 생활권 내 80%의 건축물들이 30년 이상

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음

- 전농·답십리 지역생활권은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립대가 위치하고 정비사업이 활발하여 거주환경의 변화가 큰 생활권임
 - 답십리 고미술상가, 자동차부품상가, 로타리 시장 등의 집합 상가시설과 배봉산, 답십리공원 등의 근린공원을 보유하고 있음
 -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당 인구 및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70% 이상의 건축물들이 30년 이상 노후되었고 광역도로망도 부족하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음

- 청량리 지역생활권은 청량리동, 제기동, 용신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량리역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약령시장 등 특화 시장과 역사자원을 보유한 지역 중심의 생활권임
 - 도·소매업체 및 전문·과학·기술업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음
 - 정비 예정구역이 11개이고 39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 분포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음

- 이문·휘경·회기 지역생활권은 이문1동, 이문2동,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공원녹지와 대학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권임
 -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삼육대 등이 위치하여 20대 인구 비율이 높고,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동부간선도로가 통과하고 3개 노선 전철역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함

5) 각 자치구별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지역 특성

- FGD를 통해 확인된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대한 인식 결과를 <표2-3>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동북1권은 지역 내 재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 구성과 생활 환경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타 지역에 비해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편이며, 자치구 자체의 혁신 동력도 약한 상황임
 - 성동구는 행정이 발전된 편이지만, 주로 재개발, 도시계획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이

루어진 것임

- 동대문구는 구 내에서도 동네별 특성이 다르고, 성동구는 구 내의 일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각 자치구 내에서도 동별로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표 2-3〉 지역 특성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자치구	FGD 주요 의견
성동구	“복지, 문화 전반에 있어 행정이나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왕성하게 활동하고 변화하는 중” “노년층이 많고 고령화가 심각” “향우회 발전으로 지방색이 강함”
광진구	“최근 10년간 재개발 사업 활발” “학생이 많고 상업지구 위주” “1인 가구 중심의 주거 환경 재편” “구 자체 혁신과 성장동력 부재” “구 내에서도 동네별 특성 다름”
동대문구	“1990~2000년대 재개발을 거치며 공간과 사람의 급격한 변화” “외지출신-토착민 간 갈등 존재” “외부 요인(재개발, 도시계획)에 의한 변화에 맞춰 행정이 발전” “일부 지역 상대적으로 환경 열악”

3. 동북1권 시민사회 특징 및 현황

가. 형성과 발전

1) 지역사회의 형성

- 조선시대의 한성부(漢城府) 동부 성밖(城外)의 2개방인 송신방(崇信坊), 인창방(仁昌坊)이 오늘날의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등의 지역으로 발전하였음
-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로 구성된 동북1권¹⁾은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확장과 함께 점차 확대되어가다 광진구와 중랑구 등으로 분구되었으며, 분구와 함께 각 자치구의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중랑구는 1988년 동대문구에서 분구되었고, 광진구는 1995년 성동구에서 분구됨
 - 생산 및 상업 중심의 자치구 기능이 주거 및 교통, 교육/문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고 있음
- 각 자치구의 정주 인구 비율이 높지 않은 특성과 극단적 세대층의 분리 현상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가) 성동구

- 성동구는 1943년 6월 10일 경성부의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신설되었고, 1949년 고양군 푼도면 편입을 시작으로 잠원동, 서초동, 양재동을 편입하며 점차 확대되다가, 이후 동대문구, 용산구와의 행정동 조정 및 1975년 강남구, 1995년 광진구를 분할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서울시 인구, 산업,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성동구는 서울 도심 인근에 위치한 특성으로 서울중심지구를 위한 공산품 생산 및 주거 지역으로서의 지원 기능이 발생하게 됨

1) 서울시의 생활권 구분과 달리, 중랑구가 자치구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중랑구는 본 연구의 핵심 범위에서는 제외함

- 성동구는 청계천과 중랑천 그리고 한강 본류가 연계되는 수로 연계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육로를 통하여 한강의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주요 육로 연결통로임
 - 최근 주민과 지자체가 독섬활어축제 등을 기획 운영하는 등 수상통로의 기능을 부활시키면서도, 왕십리역에 중앙선, 분당선, 2호선, 5호선이 교차되는 교통의 요충지인 지역으로 서울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 「성동구중장기계획」(2009)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 개발 등과 함께 성동구는 현재 다양한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자녀교육과 문화여건과 같은 소프트한 도시매력이 약하며 도심기반 시설의 편리성과 친환경성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성동구는 아파트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의 주거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이 시기에 아파트의 경우 18.7%, 다가구주택은 9% 증가한 반면에, 단독주택은 47.7%, 다세대주택은 37.7% 감소하여 증가세대수는 11,385가구, 감소세대는 8,668가구에 달했음
 - 2015년 왕십리 3개 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아파트 8,000여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원주민 재정착률이 30~40%인 것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동안 60~70% 정도의 외부이주민의 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외부이주민의 대거 유입에 따라 기존 원주민과 이주민 가구 간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갈등 및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2013, 성동 통계연보, 주택/건설자료)
 -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이고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재개발로 인해 나타난 급격한 변화에 빈곤, 노동, 자활 등의 전통적인 시민사회 영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 갔으며, 지역활동가 역시 지역을 떠나거나 다른 영역에서의 사적 활동업무 증가로 새로운 활동가를 성장하지 못하는 등 활동가의 세대 간 연계가 단절 또는 축소되어 왔음

나) 광진구

- 광진구의 명칭은 광진교 주변의 “너븐나루”라고 불려졌던 “광나루”에서 유래하여 제

정되었고, 일제시대까지 고양군 푼도면에 속하던 광진구 지역은 1949년에 성동구에 푼도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서울로 편입되었음

- 광진 지역에서 도시화가 확대되고 발전하기 시작된 것은 1960년대 건국대학교가 모진동 지역에 들어서고, 워커히 호텔이 광장동에 들어오면서부터임.
 - 이로 인해 광진구 지역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1973년에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어 사용되던 골프장(경성골프클럽)이 정부에 의해 어린이대공원으로 조성되는 변화도 있었음
- 1980년대 이후로는 지하철 2, 5, 7호선 등이 건설되고, 한강을 건너는 다섯 개의 큰 다리가 완비되는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으며,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2개의 종합대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 1995년 3월 광진 지역은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광진구(廣津區)가 되면서 동쪽과 남쪽은 강동구와 송파구, 서쪽은 성동구, 동대문구, 북쪽으로는 중랑구,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게 되었음 (1998,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 광진문화원)

다) 동대문구

- 동대문구는 1988년에 신내동을 재개발하면서 중랑구가 분구되었고 현재는 14개동으로 이뤄져있음. 동대문구는 전체 인구 약 34.6만명(2019년 기준)으로 동당 3만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강북지역의 대표적 자치구로서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과 역전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이자 교통의 요지인 청량리 일대와 그 외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음
- 서울의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평화시장 봉제 산업이 활발했던 70년대에 작은 공장들과 산업들이 연쇄적 영향을 미쳐서 거주지역이 형성되었는데, 동대문구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주지역으로 형성된 특징을 갖고 있음. 현재의 산업구조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공장이나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있는 지역은 아님
- 1980년대부터 청량리동 588번지에 자리 잡은 사창가가 역전을 중심으로 발달 되어

있던 저소득 주거밀집 지역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80년대 후반 청량리동을 시작으로, 전농동, 답십리동, 2019년 현재 이문동, 청량리역 주변 지역까지 변화되고 있음

- KAIST와 서울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종합 대학 4개가 위치해 있으며, 대학생이 많아지면서 상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였고, 대학가 주변은 일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에서 원룸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음
- 대학이 몰려 있어 전국에서 청년층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 동시에, 원룸의 건물을 관리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고령세대가 많은 특성 때문에, 극단적인 세대층의 구분이 존재하는 지역임
 - 동대문구의 독거노인 비율은 서울시 평균 2.8% 보다 높은 3.4%로 서울자치구 중 6번째로 독거노인 비율이 높으며, 더불어 노령화지수는 서울시 평균 120.1%보다 월등히 높은 154.2%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임
 - 청년 인구 현황도 서울시 평균 22.8% 보다 높은 24.3%로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높음

2) 시민사회의 형성

-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는 2000년대까지 노동운동과 지역운동 등 해당 시기에 대두되었던 아젠다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고, 아젠다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새로운 지역운동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동구는 1980년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1990년대의 개발 이슈와 함께 주거운동 및 주민공동체운동을 거쳐 2000년대 시민사회의 본격적 성장을 경험한 후, 현재 새로운 지역운동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진구는 1987년 이후,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투신한 노동운동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지역(주민)운동의 정립과 제도화 과정을 거쳐 시민사회가 성장하였고, 현재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대문구 역시 1987년 이후, 노동과 빈민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민중운동단체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지역 시민단체로의 변화를 거쳐 현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 성동구

○ 80년대 이전 (과거)

- 중심지구 배후지인 성동구의 마장, 성수, 송정, 용답동 지역은 봉제산업, 도금산업, 인쇄산업, 자동차 정비, 도축산업 등 열악한 노동환경의 사업장과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었음
- 산업지역이었던 성수지역과는 달리 금호·행당·응봉·왕십리·옥수지역은 낮은 구릉지역으로, 서울중심지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거지였는데, 구릉지역 특성상 산등성이까지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어 소위 달동네라 불리기도 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었음
- 청계천과 중랑천을 잇는 하천선을 중심으로 성수권역인 동남지역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발화되기 시작하며 슬기아이방(1988), 노동자복지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자건강의료활동(성수교회), 야학(새민, 무학, 삼일, 성수야학), 노조분회 결성(제화;1988, 인쇄;1988), 지역금속노조(작은공장들의분회;1988) 등의 활동이 있었음
- 서북지역인 왕십리권역은 빈곤가구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의 지역유입이 본격화되었는데,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연합회, 문화모임(울력, 한민력) 등이 태동한 시기이기도 함

○ 90년대

- 1990년대는 본격적인 재개발 이슈와 맞물려 왕십리권역은 세입자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주거운동이 본격화 되었음
- 1987년 결성된 활동가 모임인 '이모임'을 중심으로 공부방 활동과 더불어 세입자 주민을 조직하는 주민공동체운동을 활발히 활동을 전개해 감
- 1995년 활동가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직한 '금호행당하왕지역 기획단'을 중심으로 4개의 주민공동체분과는 경제, 생활, 주민, 사회복지공동체 분과를 나누어 활동하게 되었음
- 1997년 논골의류생산협동조합, 1998년 공공임대주택주민자치협의회, 1997년 논골신희협, 1998년 실업극복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운동이 전개되었고, 1999년 논골사랑기금을 조성하여 활동가 활동비지원, 주민운동지원, 특별기금사업을 수행함
- 1999년 성동평화의집이 개소하면서 푸드뱅크, 무료한방진료, 공부방 등 사회복지영역활동도 전개하였는데, 성수권역에서는 노동운동분회 단위가 확대되고 노동자권

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이 개시된 시기였음

- 지역사회복지활동으로 성동희망나눔(1998, 성동복지가 전신)의 노인, 실업, 아동복지와 삼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공부방(1990), 여성노숙인쉼터(1998), 자활의 집(1999), 예사랑, 성수교회의 개나리어린이집(1987), 어깨동무공부방(1989) 성수위원의 노동건강복지센터 및 노동건강연대 활동을 전개하였음

○ 2000년대

- 2000년대는 90년대에 뿌려진 운동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임
- 성수권역에서는 2000년 성동복지가 '성동희망나눔'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저소득실직자 가정생계비 지원, 직업교육, 노동상담, 아동청소년사업 및 실업자 지원센터를 개소 하며 자활사업, 우렁각시 성동지부 사업 등을 전개하였음
- 이외에 연대 사업으로 '성동구 통일한마당(1999년~현재), 성동지역복지연대 창립(2003년~2006년), 성수지역활동가모임(2006~현재), 주민자치운동센터(2008년~2013)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 노동자 건강권을 한 개의 축으로 한 성수동식구들(노동건강연대;2002)은 실태조사, 캠페인 등 지역이슈 생산과 집중으로 2007년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발족의 모체 역할을 수행함
- 왕십리권역에서는 1998년 설립된 실업극복위원회에서 시작된 실직자지원을 위한 프로젝트가, 2000년 자활후견기관을 창립함과 동시에 성동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지역자활사업단을 태동시킴
- 또한 그 동안 주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설립한 사단법인 생명살림 자치성동주민회(2008년~현재)가 창립하게 되면서 세입자대책위부터 시작된 왕십리 권역의 주민운동은 100% 주민출자로 만들어진 하늘나무사랑방(2014~2017), 어르신국수잔치, 반찬나눔모임, 단오제운영 등 주민 내부 결속과 더불어 왕십리권역으로 제한된 활동의 범위를 성동구 전역으로 확장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 이후 주거복지센터(2013~2016)는 임대아파트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집수리 사업, 상담, 교육사업 등을 전개함
- 이와 더불어 성수권역과 왕십리권역 활동가들은 한-일주민운동교류회(2007.12.11~14)를 계기로 양분되어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온 운동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 위해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를 설립하고 17개 주제(생활정치, 주거복지, 아동청소년, 교육문화, 서민경제금융, 노인돌봄안심, 건강의료, 지역생활환경, 자원봉사자, 노동복지, 일자리, 이주민,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홈리스복지, 통일운동)에 대한 소통을 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함

○ 2010년대 (현재까지)

-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 사이에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는 시기임
- 지역통합운동을 위한 '주민자치운동센터'는 활동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실천할 활동 주체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으며, 17개 소통분야 중 역량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성수권역은 동부비정규직지원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성수다방, 희망나눔 등 이전의 활동계획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각 단위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운동이 활동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지 못하면서 정체기를 겪고 있는 반면, 민선5기 보선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정부부터 행정이 주도하는 시민사회활성화 계획, 주민참여활성화 계획이 지속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며, 시민사회는 새로운 기회와 위기에 직면하게 됨
- 활성화정책사업으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마을활력공간지원사업, 사회적경제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민협력플랫폼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동구는 자치구생태계조성사업(2012), 협동사회경제추진단(2012)사업 등을 시작으로 행정연계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음
- 행정연계사업과 별개로 시민사회는 새로운 지역활동으로 사단법인 성동마을넷(2016)과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2016)을 설립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지원과 사회적경제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였음
-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술과도시연구소,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성동평화의집의 컨소시엄으로 성동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지역운동을 탐색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음
- 1년 사업이 종료된 성동시민협력플랫폼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고민기획단'(2018)이라는 활동가 그룹을 조직하게 되었고, 지속가능고민기획단 참여활동가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성동지역사회연대'(아산사회복지재단프로젝트; 2018~현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성동지역사회연대활동은 '성동지역주민재단' 설립위원회 발대식(2019.3)을 시작으로 지역기금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활동회원 43명, 참여 단체 13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운동의 방향을 탐색 중임

나) 광진구

○ 80년대 이전 (과거)

- 1980년대는 지역운동이 등장한 시기로 지역운동의 과도기였음
- 당시 성동구 성수동은 서울지역에서 구로동 다음 가는 공단이 있었는데, 87년 6월 항쟁과 7~9월에 진행되었던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 다수가 성동구 내의 노동현장으로 투신이 이어지게 됨
-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운동, 노동운동 지원 활동이 활발히 전개 되었는데, 주요활동으로는 노동운동, 노동자 생활야학, 노동자 문화운동, 노동자지원 보건의료운동, 통일운동(범민족대회, 통일한마당), 빈민운동(금호,옥수,행당), 민중교회 활동들이 있었고, 연대활동으로 1988년 민주쟁취국민운동 성동구 지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지역공동대책위가 결성되기도 하였음
- 당시에 활동했던 주요 조직들을 살펴보면 제화·금속·인쇄 노동조합, 동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성수·청송·한겨레·동부밀거름 야학, 놀이패 '울력', 노동자문화회관, 동부지역진료소연합, 동부지역보건의료인회, 성수교회, 삼일교회, 민중당 등이 있었음

○ 90년대

- 1990년대는 지역(주민)운동이 정립하는 시기였음. 1995년에 광진구가 성동구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노동운동과 주민운동이 구조적으로 분화하게 되었고, 지역-주민-생활이라는 활동범위, 운동주체와 대상, 내용과 방법의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운동조직의 저변이 확대되었음
- 민주노총 합법화로 중동부지구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기존의 노동운동 및 지원단체들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운동조직으로 통·폐합 되거나 창립되었음
- 주요활동으로는 노동운동, 지역연대활동 활성화, 지역 공동현안 대응, 지역주민운동, 시민운동, 97년 대선 공동대응, 95, 98년 지방선거, 지역복지운동 등이 있었고, 1993년 성동민주단체협의회, 1995년 성동-광진 민주단체협의회(1999년 발전적 해소) 등이 연대활동으로 나타남
- 주요 조직으로는 성동주민의원, 일하는청년회, 내일을위한 지역환경연구소, 민주시민회, 동부문화센터, 새날교육센터, 놀이패 '울력', 동부밀거름학교, 겨레사랑주민회, 광진복지센터, 광진시민모임 등이 있었음

○ 2000년대

- 2000년대는 지역(주민)운동 조직들의 형태가 제도화되는 시기였음
- 지역운동 주체들이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등 제도권 안의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주민생활 밀착형 활동(복지, 문화, 교육, 자치, 생활정치)으로 시민 주체들을 확장해 나가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성동-광진 민주단체협의회의 발전적 해소(1999년) 이후 개별 조직들이 각자의 활동 목적에 따라 더 다양한 조직 형태로 분화 되는 시기이기도 함
-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주민운동, 민간단체(부문별) 네트워크 조직, 지역현안 공동대응, 지역복지, 지방자치, 행정-의회-예산 모니터링 등이 있었음
- 2001년 성동-광진지역운동연대를 결성하고 부문별 민간단체 네트워크(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광진복지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의 연대활동이 이루어졌음
- 주요 조직으로는 참여-자치-나눔의 '광진주민연대', 일하는청년회, 성동-광진 민주시민회, 디지털광진(지역언론), 민주노동당, 새날을 여는 지역교육센터, 놀이패 '울력', 동부밑거름학교 등이 있었음

○ 2010년대 (현재까지)

- 2010년대는 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지역공동체가 재구성되는 시기였음 (소통과 연대)
- 삶의 공간이자 노동의 공간인 '지역',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짐
- 민간활동의 새로운 소통체계로서 영역별, 의제별 네트워크들이 약진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관점, 통합적 지역운동으로 재구성 되었음
-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주민운동, 영역별-의제별 네트워크 조직, 지역현안 공동대응, 시민사회, 복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교육, 청년, 여성, 주거복지, 50+, 지방자치 등의 의제들이 다뤄졌으며, 2016년 광진시민허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2018년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로 출범하면서 연대활동의 기틀이 더욱 단단해졌음
- 주요 조직으로는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광진복지네트워크,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광진문화예술인네트워크 '다락', 광진마을공동체네트워크, 광진청년네트워크, 광진교육운동네트워크, 광진50+네트워크, 광진주거복지네트워크, 광진여성모임 '라랄라', 디지털광진(지역언론)이 있음

다) 동대문구

○ 80년대 이전 (과거)

- 동대문구에서는 1987년 전후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음. 동대문구는 거주밀집지역 이면서도 작은 공장들(마찌코바)과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에는 문화단체인 '짓패 희망세상', 87년 6월 항쟁 기점으로 만들어진 '서울민통련(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국민운동본부(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동대문 지부', 노동자 정치교육을 한 '나눔공동체' 등이 자리잡았음
- 1987년~1989년 사이 전국연합이 만들어졌는데 한 자치구 운동이라기보다 지역단 위로서 동대문중랑민주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음. 청소년을 지원한 중랑 푸른 소나무, 야학들, 나눔공동체(현재 푸른사람들, 노동야학 형태) 등이 협의회를 만들어 나중에 전국연합에 가입하기도 하였음
- 1980년대에는 단체들이 서울을 자치구 단위로 나누기 보다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주로 연합조직을 이루어 활동을 이끌어가는 형태였음

○ 90년대

-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대표적으로 사회운동의 흐름이 NL계열과 PD계열로 나뉘어졌고, 대선이나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기면서 비판적지파와 독자세력과 등 선거 때만 되면 두 흐름이 갈라지는 양상을 보였음. 실제 1992년 대선 당시 독자후보로 백기완후보 선거운동 세력과 김대중후보의 평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선거운동 흐름이 있었음
- 1980년대 선거 때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운동에 집중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직접 출마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며 활동하는 흐름으로 변화되었음
-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로 선거 때 서로 다른 사회운동세력 계열 간에 소원해지긴 했지만 지역의 연대활동은 함께 꾸준히 진행해온 역사를 갖고 있음. 1990년대 초 지신밟기와 같은 지역의 전통행사들을 같이 진행했음
- 1989년 후반에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당시 노조도 함께 연대하고 있던 동대문구민주단체협의회가 노동과 빈민을 지원하는 연대체로서 중심으로 활동하였음. 대표적으로 '전교조 동북부지회'가 청량리에 있었고 '전교조 합법화 투쟁'이나 '경희의료원 노조'와 같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적극적 참여하였음
- '전국빈민운동연합', '전국노점상연합' 들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연대투쟁을 하였음.

대표적으로 1993년, 1994년에 청량리 한신아파트 철거지역에 연대하고 지원활동을 한 사례가 있었음

-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민중운동단체에서 서서히 지역시민운동 단체로 성격을 바꿔가기 시작하였음. 정치적 운동으로 독자정당(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민중정치연합) 노선을 거쳐서 푸른시민연대로 바뀌었고, 서울민통련 동대문지부와 국본 동대문지부가 통합해서 지금의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로 바뀌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조는 강해지고 내부가 든든해지면서 자기 싸움에 집중하게 되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기반 민중운동단체들은 시민단체로 변화하고, 노동민중운동단체는 자기 성격을 유지하면서 변화해왔음

○ 2000년대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 지역의 시민운동은 지역복지, 작은도서관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에 집중하였음
- 지역 내에서는 광우병쇠고기 반대 투쟁과 같은 이슈에 지역이 연대해서 공동 대응을 했다기보다 시민운동단체는 시민운동끼리, 노동조합과 빈민단체 등 민중운동 단체는 민중운동 단체끼리 대응하는 구조였음 (철거민 조직은 세력이 약화됨)
- 함께 공동집회를 한 적도 있었지만 크게 대립이 되거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서로의 의제가 달라서 연명하고 연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연대의 틀을 갖고 있었음

○ 2010년대 (현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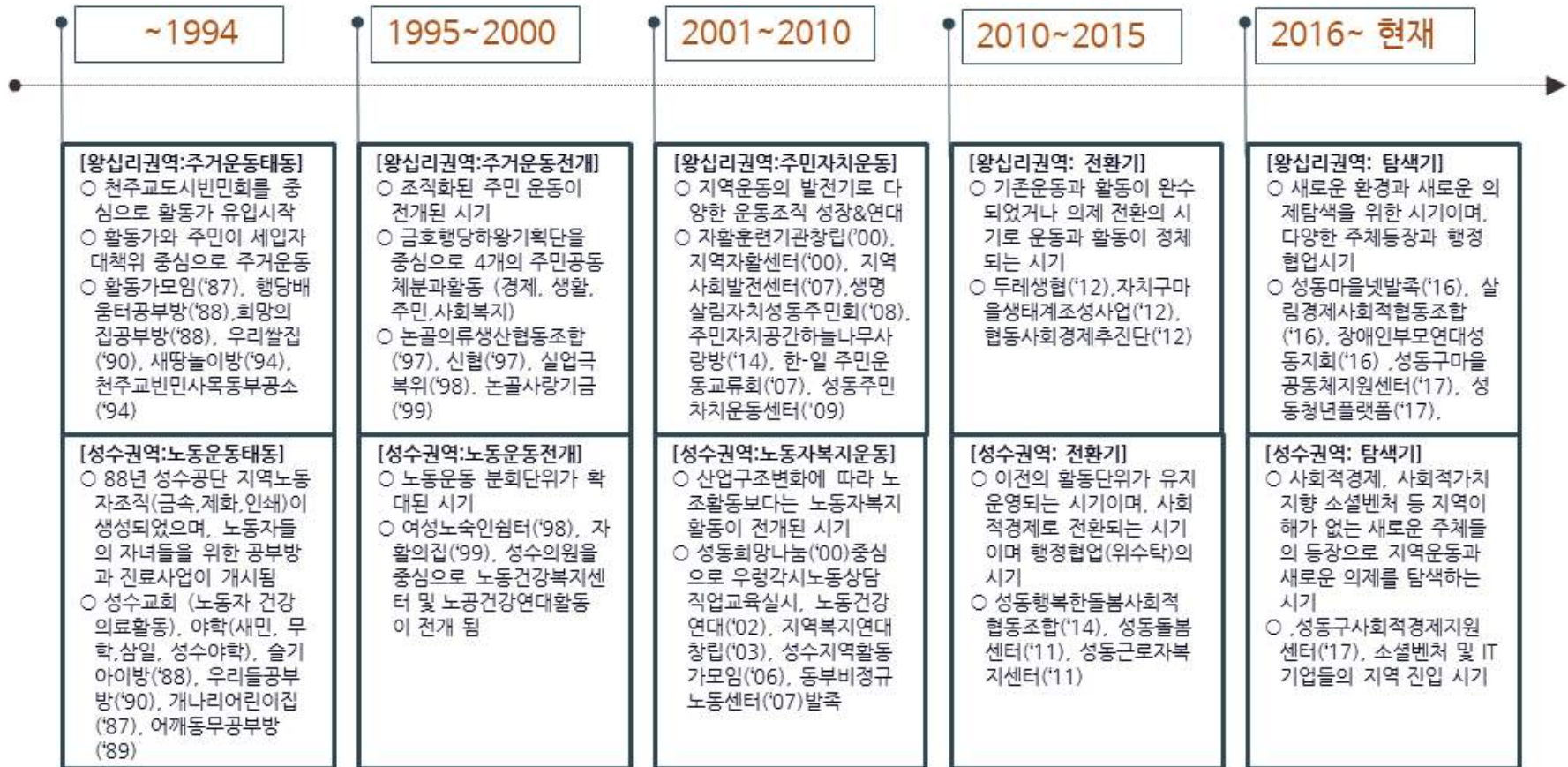
- 2010년대는 2012년 박원순 시장 당선과 2014년 세월호사고를 기점으로 시민사회 활동에 변화가 생겨났음. 박원순 시장의 정책으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이 사업들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됨
- 동대문구도 2010년대 들어서 사회적경제활성화 네트워크를 위한 개인, 단체형 집단이 형성되었고, 도꼬마리와 같은 청년단체 등 새로운 단체가 출현함
- 지역 내에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나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두 단체인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와 푸른사람들은, 작은도서관운동, 지역복지, 다양성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지역커뮤니티를 구축했는데, 서울시 사업이 아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하였음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전에 교육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시민단체와 복지관이 교육과 복지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기였음. 이때 나눔반장, 교육복지네트워크사업, 몰래산타사업 등이 연대사업으로 진행되었음
- 2014년 세월호 정국 때 노조와 민중운동을 표방하는 흐름이 생겨남

- 최근들어 협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푸른사람들, 열린사회시민회, 사회적기업 샵터, 마을공동체사업네트워크와 지역사회협치협약을 맺고 사업을 펼쳐가고 있음
- 협치회의에 단체, 마을공동체 사업단위, 사회적기업, 혁신교육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협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
- 복지네트워크와 도서관네트워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공동체네트워크가 참여하고 활성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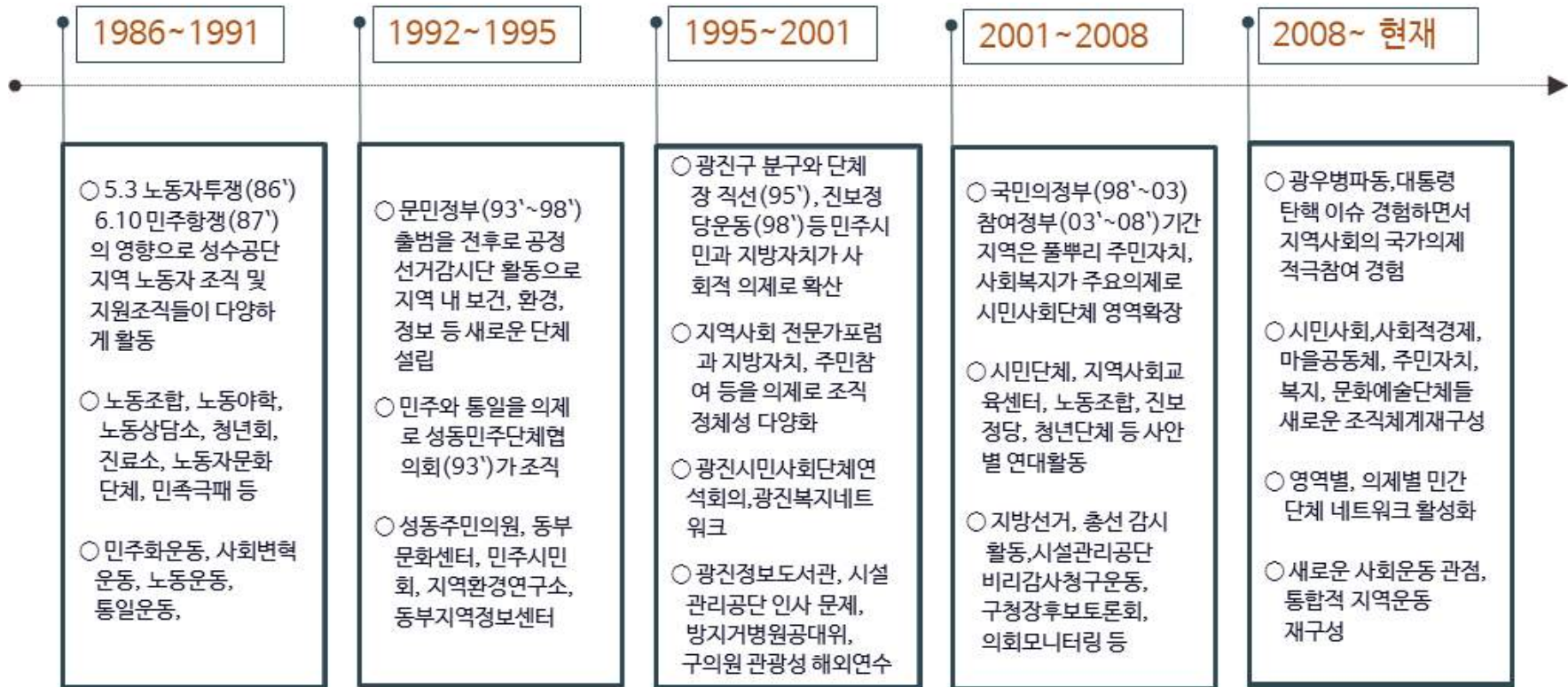
3) 자치구별 시민사회의 의제 및 활동 흐름

- 80년대에서 현재까지 연대별로 동북1권 시민사회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의제 및 관련 활동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왔는지 각 자치구별 지역 기초 조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각각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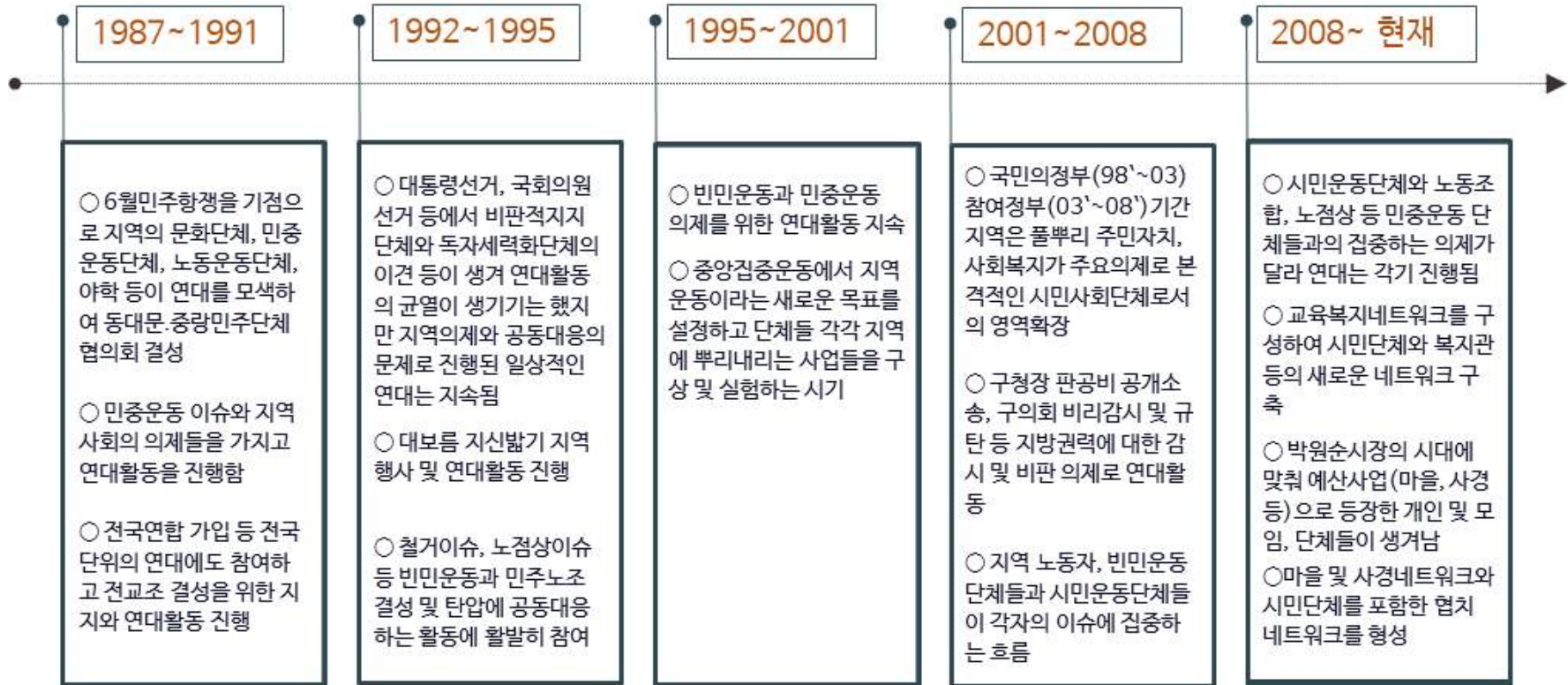
〈그림 3-1〉 성동구 시민사회 의제 및 활동 흐름



〈그림 3-2〉 광진구 시민사회 의제 및 활동 흐름



〈그림 3-3〉 동대문구 시민사회 의제 및 활동 흐름



4) 최근의 시민사회 흐름

- 최근 동북1권 시민사회의 흐름은 새로운 지역운동으로의 변화임.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추진 등 정책주도형 사업과 더불어 협동조합과 네트워크 등 주민주도의 공동체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으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주민을 활동에 동참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는 높으나, 실제 실행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자산화사업 및 포괄적 연대계획(또는 네트워크)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요소(회원 및 자원, 활동가 역량 등)가 취약하여 이전에 비해 개인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활동가가 늘어나고 있음
 - 현재 생업을 병행하는 활동가, 주민활동가, 직업활동가 등 이전과 다른 유형의 활동가가 출현하고 있음

가) 성동구

- 성동구에서는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전체 주거 건물의 76%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의 변화와, 지역 내 주요 산업이 영세제조업에서 IT 또는 소셜벤처로 옮겨감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주민과 주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적 욕구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민선 5기 박원순 시정(2011년 이후)부터 주민참여 정책과 산업지원정책 등 정책대상자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도시재생사업, 사회적경제지원사업, 주민자치회사업,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마을도서관지원사업, 공동육아지원사업, 마을미디어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마을활동가, 미디어활동가, 공동육아모임, 마을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민모임과 지역적 활동이 개시되는 추세임

- 이로 인해 그전보다 더욱 다양한 활동가 모임이 열리고 있고, 자산화사업, 포괄적연

대계획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반대 급부로 행정이나 전문가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시민사회 운동의 본질적 목적인 자발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기존 시민사회 및 활동가들의 운동방식은, 새로운 지원사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데 있어 한계에 직면해 있음. 그로 인해 회원이 감소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실패하는 등, 시민사회 조직이 계획하는 활동의 지속가능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림 3-4〉 최근 성동구의 시민사회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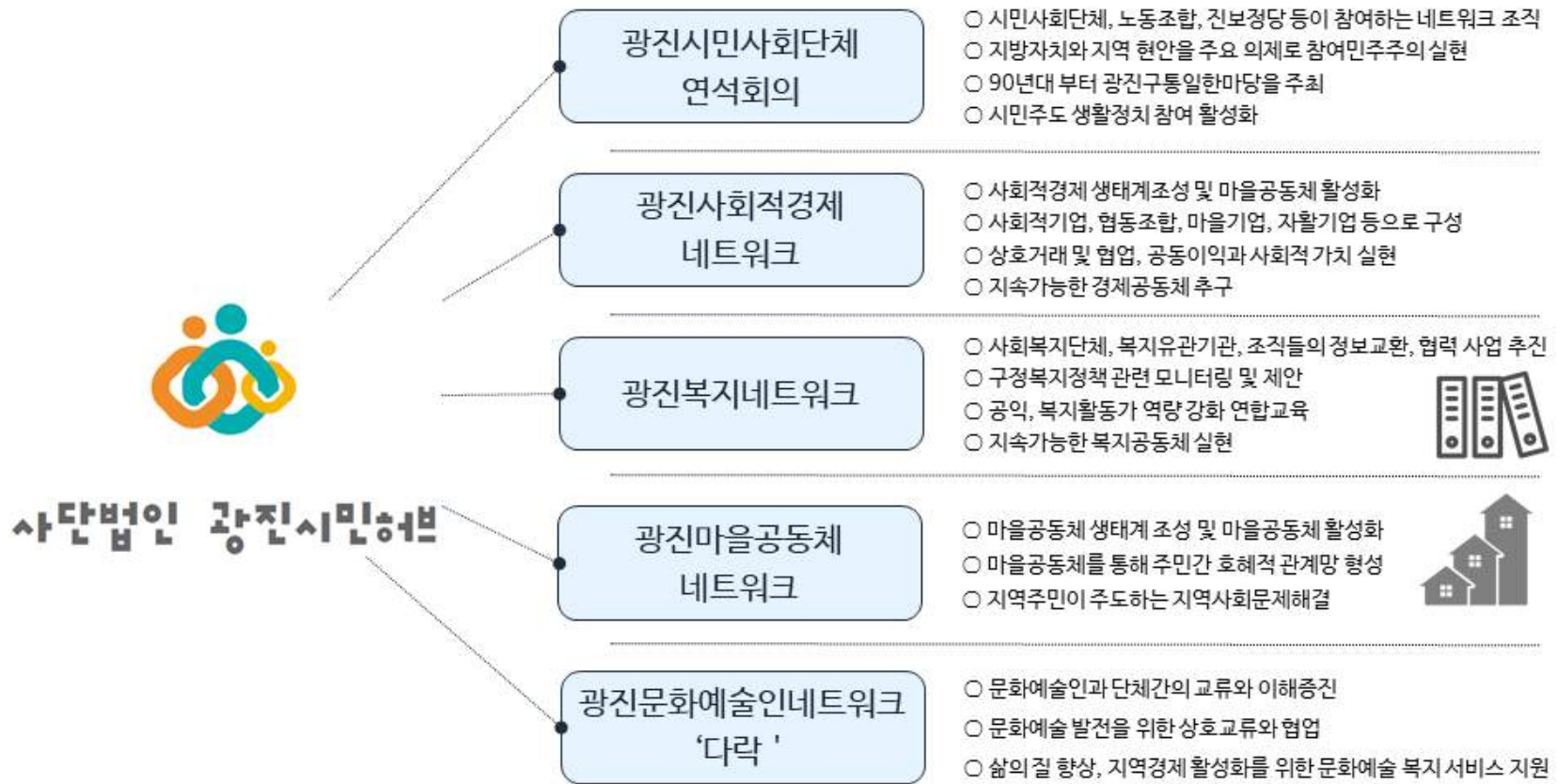
2010년~2019년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미디어	사회적경제
○ 시민사회조직	용감한엄마, 보물섬, 해아림, 우아맘꿈터 등	마을넷, 청년플랫폼, 청년사회주택 등	성동FM, 통통라디오, Oh성수, 온새미로 등	살림경제사협, 친해사협, 협동조합연합회, 행복한돌봄 등
○ 활동내용	보육활동, 육아자조모임	주민교육, 청년연대, 공동주거 등	팟캐스트, 소식지, 지역소식 등	사회적경제지원, 교육자원연대, 협동조합간협업, 돌봄종사자파견 등
○ 활동가 그룹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2010년 2019년 </div>  <p>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된 활동가 전업활동가</p> <p>자원봉사 등 계기를 통해 관심이 발생한 활동가 활동과 생업을 병행하는 활동가</p> <hr/> <p>활동가와 주민을 이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세우는 방식 (주민:리더, 활동가:촉진/매개자)</p> <p>이해당사자로서의 활동가(주민활동가) 종사자로서의 활동가(직업활동가)</p>			

나) 광진구

- 광진구 내 다양한 영역별, 의제(분야) 단체들이 공동이해관계에 기초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면서, 네트워크별 교류,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의 연대 단위가 나타나게 되었음
- 민선 5기 박원순 시정(2011년~)이후 다양한 주민참여 정책들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주민들이 등장하고 있음
- 공간자산화를 통하여 공간과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게 되면서, 주민과 연계된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 힘을 응축시켜 새로운 지역활동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2010년에는 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2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5개 단체가 공유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의 공간자산을 1차적으로 시도함
 - 2017년 재개발로 인해 1차로 공간자산을 시도했던 건물을 처분하고, 2차 공간자산을 통하여 40억원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였음. 현재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복지, 주거, 마을자치센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15개 단체의 상근자 50여명이 상시 근무하는 공유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음
-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의 출범으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 단체, 주민들의 새로운 소통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지역운동이 통합적으로 재구성 되었음
-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 출범으로 광진구 지역의제별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제해결을 위한 공론장인 광진포럼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2016년) 이후 광진교육운동네트워크, 광진주거복지네트워크, 광진청년네트워크 ‘광진러들’, 광진50+네트워크, 광진여성모임 ‘라랄라’ 등 더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 새로운 주민 등장 등의 광진구 시민사회의 새로운 변화들로 인한 양적 확장에 비해,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자립기반 마련, 활동가 교육 등의 공익 활동가 지원체계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그림 3-5〉 최근 광진구의 시민사회 흐름



다) 동대문구

- 최근 10년 내 동대문구에서는 청년조직, 마을공동체, 도서관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미디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 청년조직은 회기동사람들, 이문모아, 도꼬마리 등이 있으며, 지역 상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는 함께마을넷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사업단위별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주민교육이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도서관네트워크는 동대문구 내 공립/사립 도서관들이 있으며, 혁신교육사업 및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동대문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쓰고 있음
- 미디어로는 온동네방송국이 있어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문화네트워크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마을사업, 혁신교육,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활동가 그룹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10년 전인 2010년에는 자원봉사 등의 경험을 계기로 관심이 발생한 주민이나 활동가들을 주체적인 참여자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통해 활동가 그룹이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활동과 생업을 병행하는 활동가, 청년활동가가 나타나고 있음
 - 이해당사자인 주민으로서 활동하는 주민활동가, 종사자로서의 직업활동가들이 주가 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보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림 3-6〉 최근 동대문구의 시민사회 흐름

2010년~2019년	청년조직	마을공동체	도서관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미디어	비영리단체
○ 시민사회조직	회기동사람들, 이문모아, 도꼬마리	함께마을넷 마을공동체사업단위	동대문구 내 공, 사립 도서관	동대문구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온동네방송국	서울문화네트워크
○ 활동내용	지역상가와 주민의 참여 및 작은축제	주민교육, 마을공동체 (서울시)사업	혁신교육사업 및 도서관활성화사업 등	사회적경제인프라 확대 및 협력사업 추진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마을사업, 혁신교육, 중간지원조직 등
○ 활동가 그룹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2010년 2019년 </div>  <p> 자원봉사 등 계기를 통해 관심이 발생된 활동가 활동과 생업을 병행하는 활동가 활동과 생업을 병행, 모색하는 청년활동가 주민을 주체적 참여자로 참여하도록 끌어내는 방식 이해당사자로서의 활동가(주민활동가) 종사자로서의 활동가(직업활동가) </p>					

5) 지역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

○ 동북1권 주요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 동북1권 시민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의제를 확인하기 위해 동북1권 활동가 통합 워크숍을 진행함
- 각 자치구별로 지역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디자인씽킹 기법 중 하나인 ‘디자인 기준’ 캔버스를 활용하여 동북1권이 공동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의제들을 분류하였음
- 각 자치구 그룹별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 이후에 여지없이 꼭 해야만 하는 것(Must), 중요하고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Should), 즉각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갖고 있으면 좋은 것(Could), 해서는 안되는 것(Won't) 등 크게 4가지 기준으로 의제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함
- 분류를 완료한 후에는 MUST 항목으로 꼽은 의제 중에서, 각 지역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침

○ 자치구별 주요 의제 현황에 대한 워크숍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워크숍을 통해 확인된 각 자치구별 시민사회 주요 의제들은 <표3-1>과 같이 도출되었고, MUST와 SHOULD로 꼽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동구는 MUST로 ‘활동가 양성’, ‘소통의 확대(시민사회 내, 대시민)’, ‘재정확보’, ‘주민조직화’,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꼽았고, SHOULD로는 ‘체계적인 교육’, ‘지역기반 산업체 양성’, ‘기숙사’, ‘시민 인식 공유’ 등을 꼽았음
- 광진구는 ‘행정 중심으로 만들어진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모니터링’, ‘통일’, ‘평화의 소녀상’, ‘마을주민 참여 확대’, ‘민관협치’, ‘생활정치’, ‘의회 견제’, ‘시민자산화’ 등을 MUST로 꼽았고, ‘공론장 운영’, ‘안전한 일자리’, ‘사건사고 대응’, ‘도시재생’, ‘시민사회 내 소통’, ‘50+ 세대’, ‘활동가 교육’, ‘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네트워크 간 교류’, ‘커뮤니티케어’, ‘시민사회의 권한 강화’ 등을 SHOULD로 꼽았음
- 동대문구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형성’, ‘활동가 양성’, ‘공유플랫폼’, ‘지역단위연구’, ‘공간 지원’ 등을 MUST로 꼽았고, 인건비 등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SHOULD로 꼽았음

〈표 3-1〉 동북1권 주요의제 워크숍 - 자치구별 결과

구분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M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양성★ · 시민사회 內 소통 · 대시민 소통 · 재정확보★ · 주민조직화 · 주민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재단 모니터링★ · 통일 의제 활성화 · 평화의 소녀상★ · 마을/주민 참여 확대 · 관과의 효율적 소통 · 민관협치★ · 생활정치, 의회 견제★ · 시민자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네트워크★ · 공간★ · 지역 단위 연구 · 공유플랫폼★ · 활동가 양성★
SHOU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교육 · 지역기반 산업체 양성 · 기숙사 · 시민 인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장 운영 · 안전한 일자리 · 사건사고 대응 · 도시재생 · 시민사회 내 소통 · 50+ · 활동가 교육 · 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 네트워크 간 교류 · 커뮤니티 케어 · 시민사회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 지원정책
COU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교류 지원 · 보조금 · 교육 · 활동의 다양성 · 활동가의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내용 공유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조사 연구
W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의존 · 활동가 간 불통 · 주민분열/갈등 ·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중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공간의 사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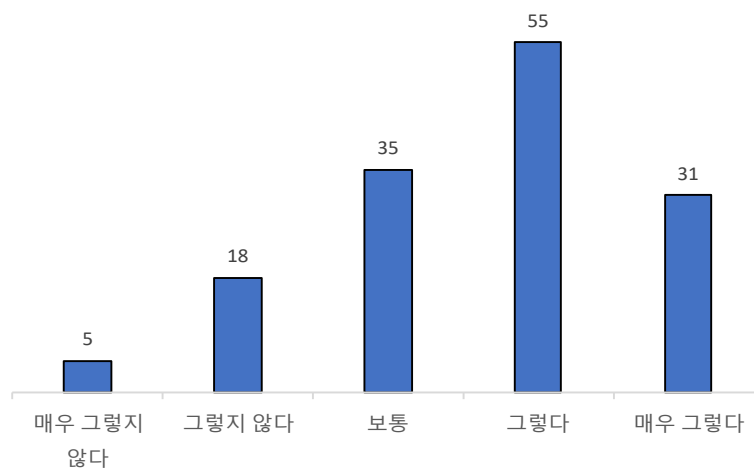
* 별 표시(★) 항목은 MUST로 꼽은 의제 중, 해당 지역에서 잘 안되고 있는 의제임

- 각 지역에서 MUST와 SHOULD로 꼽은 내용 중 잘 안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한 결과, '성동구는 활동가 양성', '재원마련',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꼽았고, 광진구는 '복지재단 모니터링', '의회 견제', '민관협치', '생활정치', '평화의 소녀상' 이슈를 꼽았으며, 동대문구는 '물질적 공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의 부재', '활동가 양성'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지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동북1권 내 자치구들은 공통적으로 '활동가 양성', '자산화 등을 통한 공간 및 재원 마련', '시민사회 및 주민과의 네트워크 및 소통의 확대', '주민참여 및 권한 확대' 등의 아젠다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6) 민관파트너십

- 동북1권 단체의 대부분인 84% 정도가 자치구와 보통 수준 이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비효율적 행정 및 소통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활동 자율성 침해에 대한 염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북1권 시민사회와 자치구 간 협력 정도
 - 현재 본인이 속한 단체와 자치구가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매우그렇다' 31건(21.5%), '그렇다' 55건(38.2%), '보통이다' 35건(24.3%)으로 약 84%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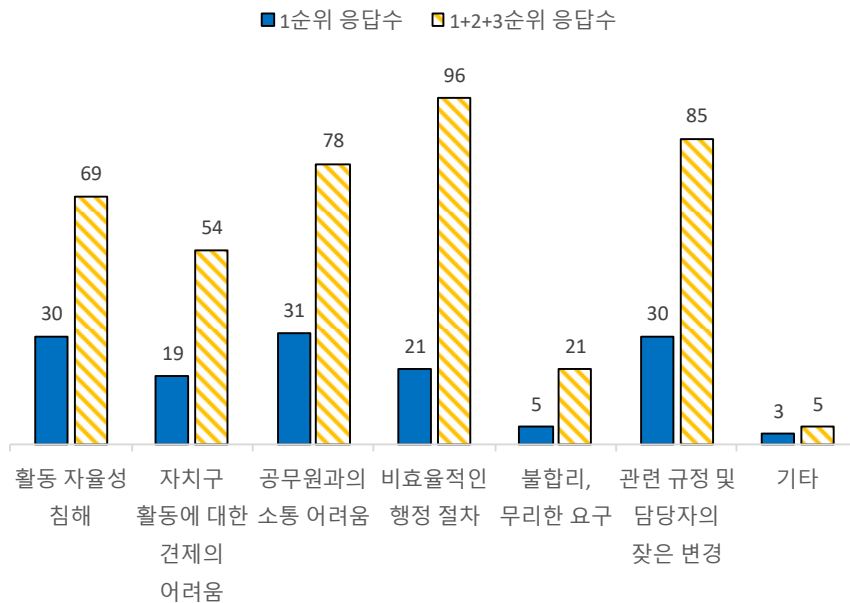
〈그림 3-7〉 시민사회 단체와 자치구 간의 협력 정도



○ 자치구와의 협력 시 어려운 점

- 공익활동단체나 활동가로서 자치구와 협력하는데 있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관련 규정 및 담당자의 잦은 변경’, ‘공무원과의 소통 어려움’, ‘활동 자율성 침해’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3-8〉 자치구와의 협력 시 어려운 점



- 자치구별 활동가 FGD를 통해서 자치구와의 협력 경험에 대한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 3-2>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고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성동구 활동가들은 성동구가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고 일 잘하는 자치구로 평가 받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시민사회와 행정 간의 균형이 맞지 않고 사업이 성과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다 보니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행정 상의 절차나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 잦은 인사 이동 및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음
 - 광진구 활동가들은 광진구와의 파트너십을 맺는데 있어 각 분야의 네트워크 조직이 파트너로 인정 받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하고,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새롭게 유입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화하고 있어 실무자 단위에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동대문구 활동가들은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협치에 대한 자치구 공무원들의 이해 및 전문성 부족, 변화에 소극적인 특성 등 행정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민간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3-2〉 자치구와의 협력에 대한 활동가 인식

자치구	FGD 주요 의견
성동구	“행정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잘함” “행정 간의 칸막이가 너무 많음” “사업별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서 정책 지속성이 떨어짐”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행정위주, 성과중심으로만 사업이 진행됨” “동등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성, 역량 키울 필요”
광진구	“행정 중심의 사업 진행”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 “과정 상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림” “새롭게 유입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화하고 있음” “네트워크 조직이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동대문구	“민관협치에 대한 자치구 공무원들의 이해 및 전문성 부족” “변화에 소극적인 행정 특성” “계속해서 비슷한 단체와 창구들을 통해 사업이 진행됨” “공무원들은 민간 영역이 행정 영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민간 영역에서도 단결이 잘 안되고, 콘텐츠나 내용 생성이 안됨”

○ 성동구 민관 파트너십 현황 조사

- 지역 기초 조사를 통해 성동구의 민관파트너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3개의 민관파트너십이 확인되었고, 확인된 모든 파트너십은 성동구와 체결되어 있음
- 대부분 구 재원으로 설립된 중간지원조직 또는 시설을 위수탁 받아 운영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형태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3〉 성동구 내 민관파트너십 현황 조사 결과

No.	파트너십 주체		협력 내용
	공공	민간(시민사회)	
1	성동구	성동청년플랫폼	성동구청년지원센터 우수탁운영
2	성동구	(사)성동마을넷 동네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우수탁운영
3	성동구	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우수탁운영
4	성동구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수탁운영
5	성동구	서울장애인부모연대성동지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우수탁운영
6	성동구	서울장애인부모연대성동지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우수탁운영
7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	인권위원회
8	성동구	성동주민회	자원봉사운영위원회
9	성동구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축제위원회
10	성동구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구정기획위원회
11	성동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생활임금위원회
12	성동구	성동청년플랫폼, 성동마을넷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	성동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14	성동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
15	성동구	친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수급심의위원회
16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17	성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동마을넷	마을공동체위원회
18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9	성동구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20	성동구	성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초정신보건위원회 위원참석
21	성동구	청년플랫폼, 장애인부모연대, 마을넷동네	협치회의
22	성동구	성동청년플랫폼	청년정책위원회
23	성동구	친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성동교육넷, 책임책아	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

○ 광진구 민관 파트너십 현황 조사

- 지역 기초 조사를 통해 광진구의 민관파트너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4개의 민관파트너십이 확인됨
- 대부분의 파트너십은 광진구와 체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부는 서울시나 광진문화원, 성동광진교육청과 파트너십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음
-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구나 시 재원으로 설립된 중간지원조직 또는 시설을 위수탁 받아 운영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형태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4〉 광진구 내 민관파트너십 현황 조사 결과

No.	파트너십 주체		협력 내용
	공공	민간(시민사회)	
1	광진구	시민사회, 직능단체, 개인	광진협치회의
2	서울시, 광진구	(사)광진시민허브(시민사회)	광진구마을자치센터
3	광진문화원	(사)광진시민허브(시민사회)	광진구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4	서울시, 광진구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민간)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5	광진구	광진복지네트워크(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	광진구	직능단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7	광진구	민간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위원회
8	서울시, 광진구	민간 동화, 문화예술 단체	서울동화축제추진위원회
9	광진구	직능단체, 아동-청소년단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10	성동광진교육청, 광진구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광진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11	광진구	구민, 직능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	광진구	직능단체,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13	광진구	아동, 청소년 단체	보육정책위원회
14	광진구	직능단체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
15	광진구	직능단체	도시디자인위원회
16	광진구	직능단체	도시계획위원회
17	광진구	직능단체	건축위원회
18	광진구	직능단체	안전관리위원회
19	광진구	직능단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20	서울시	여성이 만드는 일과미래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1	서울시	흥사단	광진청소년수련관
22	서울시, 광진구	광진장애인부모회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3	서울시, 광진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24	서울시, 광진구	(사)노동희망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동대문구 민관 파트너십 현황 조사

- 지역 기초 조사를 통해 동대문구의 민관파트너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9개의 민관파트너십이 확인됨
- 이는 성동구와 광진구의 파트너십 현황에 비해 절반이 안되는 적은 수준으로, 대부분 동대문구와의 협력이었지만 일부는 서울시,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이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는데, 서울시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진행하는 형태의 파트너십도 존재한 반면에, 타 자치구와 달리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3-5〉 동대문구 내 민관파트너십 현황 조사 결과

No.	파트너십 주체		협력 내용
	공공	민간(시민사회)	
1	동대문구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회기동 마을활력소 위탁운영
2	동대문구	함께마을넷	휘경아뜰리에 위탁운영
3	동대문구	회기동사람들	청년정책TF 민간협의체 대표
4	동대문구	서울문화네트워크	마을자치센터 위탁운영
5	동대문구	서울문화네트워크	배봉산 꿈마루 도서관 위탁운영
6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구립청소년독서실 5개 위탁운영
7	동대문구	동대문화재단	선농단역사문화관 위탁운영
8	서울시NPO지원센터	경희대학교 실천교육센터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사업 위탁운영
9	서울시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치구-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공동 운영

나. 동북1권 시민사회 현황

- 시민사회 단체의 규모 측면에서 동북1권은 절대적 수치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인구 수에 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상대적 규모에서도 다른 생활권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1) 지역단체 현황

-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의 규모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에 의하면, <표 3-6>에서와 같이 동북1권 내 등록 단체 수는 272개(서울시 전체의 7.6%)로 서울시 내 6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비영리법인 허가현황, NPO, 노동조합 등의 현황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3-6> 동북1권 비영리민간단체 등 현황

구분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개)			서울시허가 비영리법인 (19년 6월)	서울시 소재 NPO (2014)	노동조합 (2017)	노동조합 조합원수 (2017)
	서울시 등록 (19년 5월)	중앙부처등록 (19년 5월)	총계 (19년 5월)				
서울시	2,194	1,359	3,553	4,295	1,753	1,549	1,234,348
동북1권	197	75	272	246	103	119	76,582
성동구	46	25	71	62	28	48	61,799
광진구	57	20	77	56	24	22	6,686
동대문구	60	24	84	89	37	30	3,847
서울시 자치구평균	88	54	142	172	70	62	49,374

참고.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07.01),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계획(2019.06.14), 서울시 비영리법인 허가현황(2019.06.19), 서울시 소재 NPO 정보(2014), 서울시 노동조합 (구별) 통계(2017)

-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인구수 대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3-7>와 같이 동북1권은 인구 5,321명 당 1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동북2권을 제외한 도심권(577명당 1개), 서북권(2,098명당 1개), 서남권(3,754명당 1개), 동남권(3,114명당 1개)과 비교했을 때 최소 1.4배에서 최대 9.2배에 달하는 수치임
 - 즉, 동북1권은 거주하는 인구 수에 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적은 상황이며, 이를 통해 절대적 규모 뿐만 아니라 상대적 규모 측면에서도 다른 생활권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음

〈표 3-7〉 서울시 내 생활권별 인구수 및 비영리단체 수

구분	인구수(A)	비영리단체 수(B)	인구수 대비 단체수 (A/B)
도심권	544,512	944	577
동북1권	1,447,182	272	5,321
동북2권	1,649,412	270	6,109
서북권	1,195,853	570	2,098
서남권	3,089,807	823	3,754
동남권	2,099,161	674	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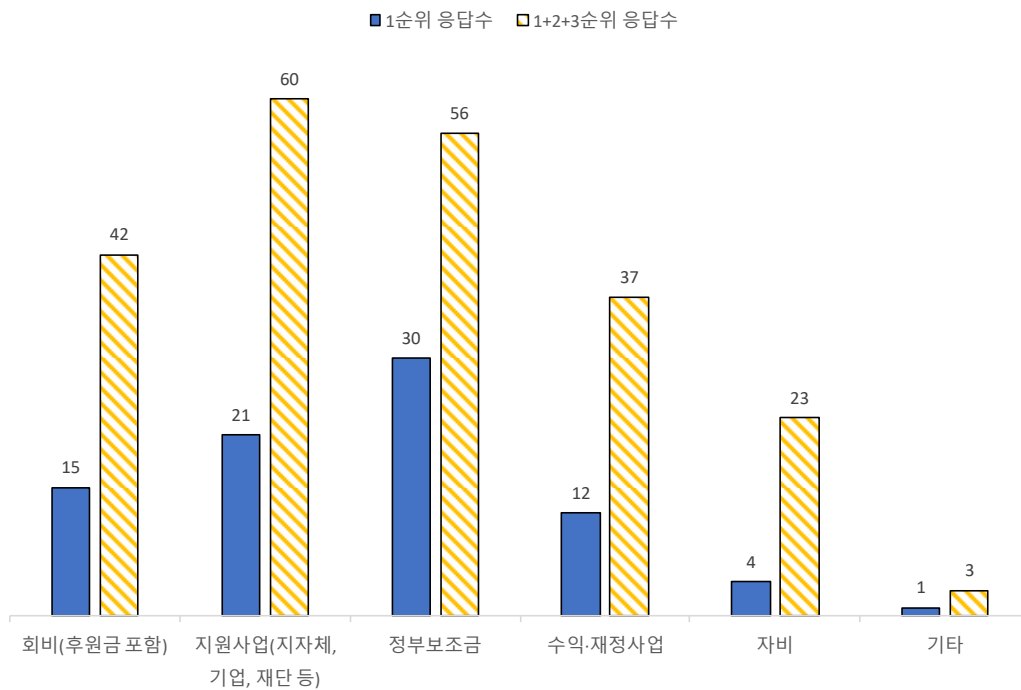
참고.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07.01.)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구별) 통계(2019년 3/4분기)

○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의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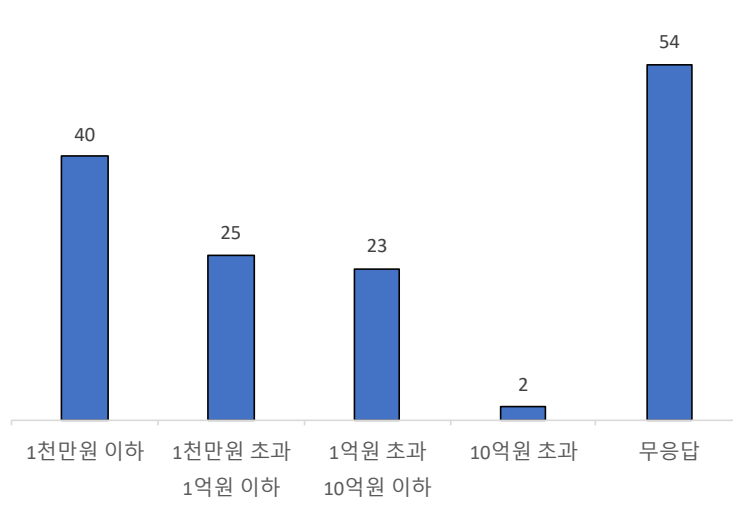
- 현재 동북1권 내 시민사회 단체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활동가에게 현재 속한 단체의 자원 현황을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지자체, 기업, 재단 등으로부터의 지원사업’, ‘정부보조금’, ‘후원금을 포함한 회비’ 등의 순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 동북1권 공익단체 자원 현황



- 현재 자치구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은 54건을 제외한 나머지 90건의 응답을 지원 규모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는 <그림 3-10>과 같음
- 지원받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응답이 40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지원 금액은 약 2억 2천만원이었으나, 가장 적게 지원받는 단체는 50만원, 가장 많이 지원받는 단체는 95억원으로 편차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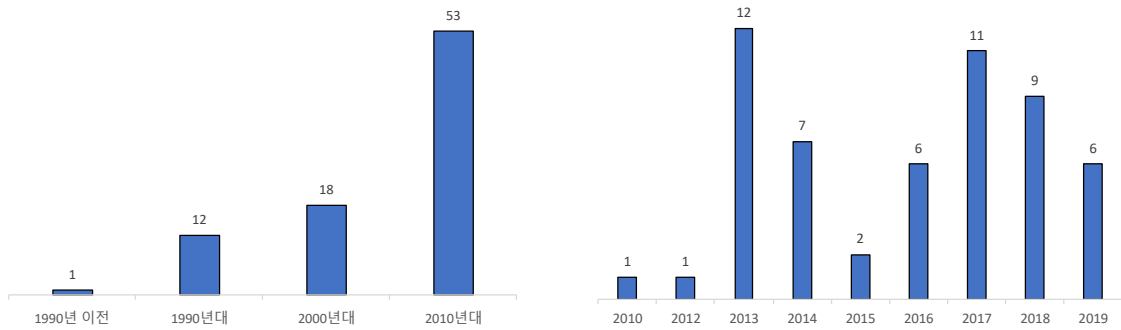
<그림 3-10> 자치구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금액



○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의 설립연도

- 현재 동북1권 내 시민사회 단체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활동가에게 현재 속한 단체의 설립 연도를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한 결과는 <그림 3-11>과 같이 나타남
- 2010년대에 설립되었다는 응답수는 53건(63%)에 달했으며, 중앙값은 6년, 최빈값 또한 6년으로 대부분의 단체가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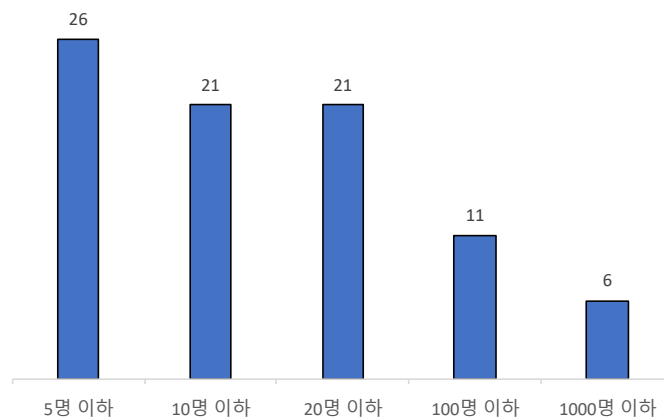
〈그림 3-11〉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 설립년도 & 2010년대 상세



○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 수

- 현재 동북1권 내 시민사회 단체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활동가에게 현재 속한 단체의 활동가 수 현황을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한 결과는 〈그림 3-12〉와 같이 나타남
- 20명 이하라고 응답한 수가 68건으로 전체 응답의 82%에 달했으며, 중앙값은 10명, 최빈값은 4명으로 대부분의 단체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동북1권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수



○ 동북1권 자치구별 시민사회 단체 현황

- 지역 기초조사를 통해, 각 자치구별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 단체들을 리스트업하였고,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표 3-8>, <표 3-9>, <표 3-10>과 같음

- 성동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된 단체 수는 45개로, 그 중 사단법인 23개, 재단법인 4개, 사회적협동조합 4개, 임의단체 14개로 나타남

<표 3-8> 성동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No.	단체명	법인유형	활동분야(의제)	설립연도	상근자수	회원 수	재원출처
1	성동청년플랫폼	임의단체	청년, 교육, 문화, 예술	2016	2	50	수익사업, 회비, 지원사업
2	건강한의료사협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2014	1	1280	수익사업
3	성동희망나눔	사단법인	사회복지, 문화예술	1998	2	150	회비(후원금), 지원사업
4	성동마을넷 동네	사단법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2016	2	68	회비, 후원금
5	성동주민재단설립위원회	임의단체	주민조직, 지역이슈	2019	0	47	회비
6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경제공동체조직	2014	3	28	회비, 출자금
7	친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2017	1	43	수익사업, 지원사업, 출자금
8	성동평화의집	임의단체	빈곤, 종교	2002	1	미확인	단체지원금
9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	사단법인	도서, 교육	2003	5	850	단체지원금, 회비, 후원
10	올림	사단법인	예술, 교육	2013	3	30	회비, 지원사업
11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법인	환경	2003	12	267	회비, 후원, 보조금
12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동지부	사단법인	장애	2016	0	미확인	회비
13	성동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2017	미확인	110	회비, 수익사업, 출자금
14	한베평화재단	재단법인	평화	2016	4	미확인	후원금, 수익사업
15	피스박스	임의단체	평화, 도서, 교육	2018	2	미확인	수익사업
16	M&J문화복지	재단법인	청소년, 교육	2018	2	미확인	후원금
17	동부비정규노동센터	임의단체	노동, 상담	2007	미확인	미확인	후원금
18	성동희망나눔	사단법인	저소득실직지원, 노인	2000	0	107	후원, 보조금

No.	단체명	법인유형	활동분야(의제)	설립연도	상근자수	회원 수	재원출처
19	녹색자전거봉사단	사단법인	친환경자전거활성화	2009	0	115	회비, 후원, 보조금
20	아시아프렌즈	사단법인	다문화사업	2013	4	280	회비, 후원, 보조금
2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의단체	장애	2005	6	114	회비, 후원, 보조금
22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 모임	임의단체	공익제보	2005	2	178	회비, 후원, 보조금
23	유니시드통일봉사단	임의단체	탈북, 노숙	2014	5	100	회비, 후원, 보조금
24	착한사람들	임의단체	소외계층봉사	2005	3	102	회비, 후원, 보조금
25	십시일밥	사단법인	취약계층대학생	2014	0	287	회비, 후원, 보조금
26	교통안전실천단	사단법인	교통안전	2001	5	1850	회비, 후원, 보조금
27	한국빈전문제연구소	사단법인	빈민, 인권, 복지	2000	0	221	회비, 후원, 보조금
28	한국신체균형조절학회	사단법인	체력균형, 교육	2015	1	105	회비, 후원, 보조금
29	선진화국민연합	사단법인	정책개발, 캠페인	2008	4	100	회비, 후원, 보조금
30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사단법인	안보, 회원복지	2013	3	460	회비, 후원, 보조금
31	도우회	사단법인	회원친목, 지하철재해지원	2004	7	126	회비, 후원, 보조금
32	동물자유연대	사단법인	동물복지	2001	6	2,541	회비, 후원, 보조금
33	해병대육수전우회	사단법인	재해지원	2018	3	105	회비, 후원, 보조금
34	대한노인회성동지회	사단법인	노인복지	2005	4	5,995	회비, 후원, 보조금
35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사단법인	전상자치료, 재난구호	2013	0	105	미확인
36	공감인	사단법인	심리치유, 상담	2014	1	136	미확인
37	함께하는보육	임의단체	보육, 조사연구	2004	1	110	미확인
38	성동제화협회	임의단체	제화, 일자리	2009	1	100	미확인
39	대학교육연구소	임의단체	대학교육, 정책	1993	8	219	미확인
40	누구나꽃	임의단체	다문화, 꽃배달	2018	0	103	미확인
41	멋진사람들	사단법인	소외계층, 홀라춤	2016	0	102	미확인
42	착한청년들	사단법인	취약장애, 주거	2017	1	105	미확인
43	대학생공간디자인연합 유이드	임의단체	문화, 디자인	미확인	0	100	미확인
44	서울청년회의소	사단법인	지도역량, 지역개발	2003	2	113	미확인
45	한국통일문화진흥회	재단법인	전방시찰, 통일	1995	3	1,000	미확인

- 광진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된 단체 수는 39개로, 그 중 사단법인
은 7개, 재단법인 1개, 사회적협동조합 7개, 비영리민간단체 8개, 임의단체 6개, 사
회복지법인 5개, 노동조합 4개, 의료법인 1개로 나타남

〈표 3-9〉 광진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No.	단체명	법인유형	활동분야(의제)	설립연도	상근자수	회원 수	재원출처
1	광진주민연대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	2001	2	350	회비(후원금)
2	광진시민연대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	2005	1	270	회비(후원금)
3	광진녹색동행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	2014	0	50	회비(후원금)
4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장애인	2001	14	미확인	미확인
5	광진참여네트워크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사회	미확인	0	50	회비(후원금)
6	새날을여는지역사회 교육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아동,청소년 복지	1996	5	500	보조금, 회비(후원금)
7	광진노동복지센터	노동조합	노동	2017	5	미확인	보조금
8	민주노총 광진지부	노동조합	노동	2015	0	미확인	미확인
9	참여하는 사람들	임의단체	시민사회	2014	0	50	미확인
10	(사)함께가는 광진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장애인	미확인	5	200	보조금, 회비
11	(사)희년의집	사단법인	여성, 아동/청소년	1995	4	200	보조금, 회비
12	615공동선언실천 광진본부	비영리 민간단체	통일	2014	0	미확인	회비
13	광진구청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	미확인	2	미확인	회비
14	동서울우편집중국노조	노동조합	노동	2014	2	미확인	회비
15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법인	복지	1994	27	미확인	보조금
16	광진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 법인	복지	2006	10	미확인	보조금
17	광진구정신건강 증진센터	의료법인	복지	2005	14	미확인	보조금
18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복지	2002	16	미확인	보조금
19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법인	복지	1993	29	미확인	보조금
20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법인	복지	1998	30	미확인	보조금
21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복지	2006	15	702	보조금
22	광진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복지	2018	3	미확인	보조금

No.	단체명	법인유형	활동분야(의제)	설립연도	상근자수	회원 수	재원출처
23	광진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사단법인	장애인	2017	5	미확인	보조금
24	우리동네 북적북적	비영리 민간단체	복지	2015	2	미확인	보조금
25	늘푸른돌봄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복지	2006	5	미확인	보조금
26	광진노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법인	복지	2003	30	미확인	보조금
27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사단법인	문화예술	2004	18	300	수익사업, 보조금
28	광진예술교육연합회	임의단체	문화예술	2002	1	150	회비
29	전통타악예술단 '울력'	임의단체	문화예술	1988	3	600	수익사업
30	광진문화예술인동아리 연합회	임의단체	문화예술	미확인	미확인	500	회비
31	건대프리마켓	임의단체	문화예술	2012	3	100	보조금, 회비
32	한국폴리리협회	사단법인	문화예술	미확인	미확인	50	미확인
33	희망을 심는 나무	재단법인	사회적경제	2014	미확인	미확인	보조금, 수익사업
34	광진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임의단체	마을공동체	2012	미확인	80	미확인
35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사단법인	사회적경제/교육	2010	5	미확인	보조금, 회비
36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2014	2	미확인	미확인
37	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2013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38	해오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2014	2	미확인	미확인
39	모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2015	1	미확인	미확인

- 동대문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된 단체 수는 11개로, 그 중 사단법인 4개, 사회적협동조합 3개, 임의단체 3개, 사회복지법인 1개로 나타남

〈표 3-10〉 동대문구 시민사회 단체 현황

No.	단체명	법인유형	활동분야(의제)	설립연도	상근자수	회원 수	재원출처
1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사단법인	주민자치, 청소년, 여성, 도서관 등	1989	5	400	회비(후원금), 지원사업, 정부보조금 등
2	푸른사람들	사단법인	도서관, 문해교육, 다문화 등	1994	5	104	회비(후원금), 지원사업, 정부보조금 등
3	도꼬마리	임의단체	성평등, 마을기록, 청소년교육	2013	2	45	회비, 지원사업
4	회기동사람들	임의단체	마을공동체 지역 청년 네트워크 마을축제 등	2015	0	15	회비, 지원사업
5	이문모아	임의단체	마을기록, 전시, 청년네트워크 등	2018	0	7	회비, 지원사업
6	함께마을넷	사단법인	마을활동, 마을공동체	2018	1	30	회비, 지원사업
7	서울문화네트워크	사단법인	마을문화형성공동체활동 등	2014	4	9	지원사업, 수익사업 등
8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교육훈련, 협의조정, 저소득층 지원	2005	3	31	위탁사업, 지원사업 등
9	헤민서	사회적협동조합	도소매 플랫폼	2016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10	삶터	사회적협동조합	보건, 사회복지	2015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11	돌봄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보건, 사회복지	2018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2) 네트워크 현황

○ 동북1권 자치구별 시민사회 단체 현황

- 지역 기초 조사를 통해, 각 자치구별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네트워크들을 목록화 하고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였음

- 성동구는 <표 3-11>과 같이, 청년CEO, 사회적경제 돌봄기관, 마을공동체, 주민재단 설립, 마을교육, 지역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지역 내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사회혁신 활동가 네트워크, 의료사협 등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을 보였음

〈표 3-11〉 성동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현황

No.	형태구분	네트워크명	참여규모	결성시기	목적	활동내용
1	지역 내 네트워크	성동청년ceo	성동청년플랫폼 등 22명	2017년	성동구 관내 청년ceo 자조 모임	취창업 및 사회관련 정보교류, 공동구매/ 마케팅 등 협업사업, 인적네트워크망 운영
2	의제 네트워크	미래혁신학교	SK행복나래 등 155명	2015년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교류	사회가치/사회경제/인성 교육커리큘럼운영, 영역별 연대소모임 및 동아리 운영, 정기세미나/포럼 기획 운영
3	의제 네트워크	한국의료사협 연합회	전국 21개 의료사협	2003년	의료사협 육성지원, 의료공공성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	의료사협 개설 컨설팅, 의료공공성 관련 연구, 정부와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의
4	지역 내 네트워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희망푸드나눔 등 약 20개 단체	2004년	민관시민 사회단체 협력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5	지역 내 네트워크	성동구 사회적경제 안심돌봄 네트워크	성동구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약 10명	2018년	사회적경제 돌봄기관 협력	사회적경제 돌봄기관 협력상품 개발
6	지역 내 네트워크	성동구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약 6개 단체	2016년	돌봄, 복지,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와 마을 협업
7	지역 내 네트워크	성동주민재단 설립준비모임	친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등 17개단체	2018년	지역주민 재단설립	주민교육사업, 기금조성사업, 네트워크 조직사업
8	지역 내 네트워크	성동교육넷	사단법인 올립 등 20개단체	2017년	성동마을 교육계획 수립운영	마을강사조직, 마을학교연대 운영
9	의제 네트워크	한국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연합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200개소 (266명)	2011년	전국 협의체 상호교류 및 효율적인 운영 지원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정책사업, 광역시도 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사회보장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전국대회(지역대회) 공동추진 등 행사지원, 국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활동 등

- 광진구는 <표 3-12>와 같이, 지역 내에서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복지,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마을교육, 청년, 50+, 주거환경 등 다양한 의제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네트워크의 연합체로서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 다른 자치구와 차이가 있음

<표 3-12> 광진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현황

No.	형태구분	네트워크명	참여규모	결성시기	목적	활동내용
1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13개	2001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	지방자치, 지역현안 의제
2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사회적경제 네트워크	52개	2014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공동이익을 위한 협업
3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복지네트워크	17개	2008년	복지유관단체 교류,협력	정책모니터링, 연합교육
4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문화예술인 네트워크'다락'	36명	2016년	문화예술인 교류,협력	문화예술활성화, 협업
5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마을공동체 네트워크	20개	2013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6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교육운동 네트워크	19명	2016년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교육운동 활성화 사업
7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청년네트워크	35명	2014년	지속가능 활동 기반 마련	청년커뮤니티 형성
8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50+네트워크	14개	2016년	유관단체 교류,협력	50+ 사업 지원
9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주거복지 네트워크	7개	2018년	주거문제 해결, 기반 마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권보장 사업
10	지역 내 네트워크	광진여성모임 '라랄라'	15명	2018년	성평등, 여성권익향상	여성관련 이슈, 공론화
11	지역 내 네트워크	(사)광진시민허브	10개	2016년	시민사회포괄적 네트워크	시민사회활성화, 시민력 강화사업

- 동대문구는 <표 3-13>과 같이, 성동구와 광진구에 비해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고, 결성 시기도 비교적 최근이라는 특성을 보였음

〈표 3-13〉 동대문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현황

No.	형태구분	네트워크명	참여규모	결성시기	목적	활동내용
1	지역 내 네트워크	동대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39개 단체	2016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사회적경제통합 지원사업, 교류사업 등
2	지역 내 네트워크	민민협력 컨소시엄	9개 단체	2018	민민협력사업 추진	시민자산화, 씨앗토크, 활동가 아카데미 등
3	의제 네트워크	청년문화네트워크	4개 단체 & 개인 10여명	2019	청년문화예술 분야 활동 청년 네트워킹	월1회 네트워크 파티 및 공동모임 진행

3) 활동가 현황

○ 공익활동 경력 현황

- 동북1권 활동가 대상 서베이에서 활동가 본인의 공익활동 경력 기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10~20년'이 41명(28%)으로 가장 많았고, '1~3년'이 35명(24%), '5~10년'이 26명(18%) 순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활동가가 총 61명으로 전체의 41%인데 비하여, 3년 미만의 신입 활동가는 총 37명으로 전체의 25%로 나타났으며 특히 1년 미만의 활동가가 2명으로 가장 적었음
- 이를 통해 활동가 세대가 전반적으로 고연차화 되어 있고, 신규 활동가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3-14〉 동북1권 활동가 경력기간별 현황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합계
인원수	2명	35명	22명	26명	41명	18명	144명
백분율	1%	24%	15%	18%	28%	13%	100%

○ 근무 형태 및 고용 형태

- 동북1권 활동가 대상 서베이에서 활동가 본인의 근무 형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표 3-15〉와 같이 상근직이 73명(51%)으로 가장 많았고, 자원활동 44명(31%), 비상근직 17명(12%) 순으로 나타남

〈표 3-15〉 동북1권 활동가 근무형태별 현황

구분	반상근직	비상근직	상근직	자원활동	기타	합계
인원수	5명	17명	73명	44명	5명	144명
백분율	3%	12%	51%	31%	3%	100%

기타 항목: 퇴직자, 무급대표직, 프리랜서 등이 있었음

- 고용 형태를 묻는 설문을 함께 진행한 결과, 개인활동가 등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인원이 59명(41%)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43명(30%),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37명(26%)으로 나타남
- 동북1권은 개인활동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개별 응답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개인활동가 대부분이 자원활동 또는 비상근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표 3-16〉 동북1권 활동가 고용형태별 현황

구분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	해당없음 (개인활동가등)	기타	합계
인원수	37명	43명	2명	59명	3명	144명
백분율	26%	30%	1%	41%	2%	100%

기타항목: 대표자, NPO에서는 비상근이고 사회적기업에서 정규직, 무급대표직 등이 있었음

다. 동북1권 시민사회 생태계 주요 특징

- 동북1권 시민사회 생태계의 주요 특징에 대한 조사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초조사와 서베이 및 FGD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
 - 주민참여도(기부, 사회단체 활동 참여, 자원봉사 등)에 대한 정보는 관련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하였으며, 다른 주요 특성에 대해서는 서베いや FGD를 통해 수렴된 활동가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음

- 공공데이터에 드러나고 있는 동북1권 주민참여도는 참여율과 참여형태에 있어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동북1권 활동가들은 공익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활동 주체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주민 참여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선 늘어나는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수용할만한 공간 및 인프라를 보완하고, 보다 시민 친화적인 의제와 참여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동북1권은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시민사회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북1권 활동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낮고, 후배 활동가의 신규 유입 및 양성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1) 주민 참여도

- 기부경험
 - 「서울시 기부 경험여부 및 기부형태 통계」(2018)에 따르면, 동북1권 주민들은 기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참여도를 보이며, 기부경험률과 기부 형태는 자치구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동북1권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성동구는 34.7%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동대문구의 경우 직장(기업)을 통한 기부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진구의 경우 종교단체, 물품후원단체 및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형태가 두드러진 반면, 성동구는 모금단체(기관) 및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표 3-17〉 동북1권 기부경험률 및 기부형태

구분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기부경험률 (%)		38.9	34.7	38.4	41.0
기부형태 (%)	모금단체 (기관)	16.5	17.9	15.8	16.2
	종교단체	16.8	10.3	18.4	13.5
	물품후원단체	4.1	2.1	7.1	2.7
	직장 (기업)	4.5	6.4	2.3	12.7
	언론기관	1.8	2.1	0.8	1.0
	대상자에게 직접	1.4	0.7	2.4	0.2

참고. 서울시 기부 경험여부 및 기부형태 통계(2018)

○ 사회단체 활동 참여

- 「서울시 사회단체활동 참여 통계」(2018)에 따르면, 전체 사회단체활동 참여율에 있어서 성동구는 82.3%, 광진구는 82%로 서울시 평균(80.6%)보다 높았고, 동대문구는 77.2%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았음
- 사회단체 활동 중, 본 조사와 관련성이 있는 자원봉사/시민운동단체/노조 등에의 참여 비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세 가지 모두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고, 광진구는 세 가지 모두 서울시 평균 및 동북1권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동대문구는 시민운동단체와 노조 참여율은 낮으나,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이처럼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도는 자치구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며, 광진구에 비해 성동구와 동대문구의 참여율이 낮은 편임

〈표 3-18〉 동북1권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구분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	80.6	82.3	82	77.2
자원 봉사단체 참여율 (%)	1.3	0.8	1.8	1.5
시민 운동단체 참여율 (%)	0.5	0.1	1.2	0.1
노조 및 직능 단체 참여율 (%)	0.8	0.1	0.7	0.2

참고. 서울시 사회단체활동 참여도 통계 (2018년, 중복응답)

* 사회단체활동은 친목회, 동창회,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정당, 종교 단체 등을 모두 포함

○ 자원봉사 참여

- 「서울시 자원봉사자 등록률 통계」(2018)에 따르면, 동북1권 자치구들은 대체로 서울시 평균 (등록률 23.46% / 참여율 12.2%)보다 낮은 참여 수준을 보였음
 -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성동구가 21.12%, 광진구가 21.66%, 동대문구가 21.88%를 보여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았음
 - 자원봉사 참여율은 성동구가 8.7%, 광진구가 11.7%, 동대문구가 17.1%로, 성동구와 광진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동대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음

〈표 3-19〉 동북1권 자원봉사 등록률 및 참여율

분류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91,653 (평균)	65,082	77,015	76,151
자원봉사자 등록률 (해당 지역 인구 중 자원봉사자 등록한 사람 비율)		23.46	21.12	21.66	21.88
자원봉사 참여율		12.2	8.7	11.7	17.1
자원봉사활동 연간 참여횟수	환경보전과 보호분야	3.19	2.57	3.3	3.01
	사회적약자 지원분야	4.26	2.27	5.95	2.66
	재능나눔 문화예술분야	3.61	2.8	2.64	2.65
	재난재해 응급 관련 분야	2.2	1.81	2.08	4.17
	자녀교육 관련분야	3.73	3.5	4.21	1.52
	국제사회 관련분야	1.24	1	1.19	1.3
	기타	9.66	-	-	-

참고. 서울시 자원봉사자 등록률 통계(2018),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및 참여 횟수 통계(2018)

2) 주민 참여도에 대한 활동가 인식

○ 자치구별 지역 기초 조사를 통해 주민 참여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각 자치구별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성동구 지역 기초 조사 결과

- 성동구 활동가를 통한 지역 기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동구는 17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 307명의 자치회원이 참여 중이고, 동별

평균 38명이 참여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교육은 2018년 27회 진행하면서 주민 399명이 참여하고 있음

- 서울시 주도의 다양한 혁신사업(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주민자치회, 동보장협의체 등)은 행정주도로 타 자치구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수준은 초기단계임
- 성동구 시민참여기회 확대는 행정 주도로 실시되는 경향을 보이며, 자발적 시민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광진구 지역 기초 조사 결과

- 광진구 내 각종 주민참여 위원회(행정, 예산, 복지, 경제, 도시재생,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혁신교육 등)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음
- 서울시 주도의 다양한 혁신사업(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복지 등)의 참여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가장 늦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광진구의 시민참여는 평균,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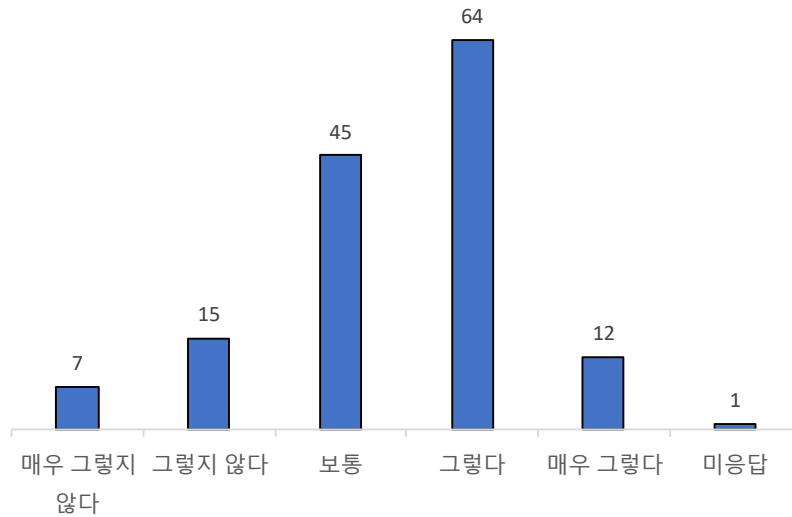
- 동대문구 지역 기초 조사 결과

- 동대문구의 시민참여는 서울시 평균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 됨
- 동대문구는 시민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부분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편임
- 서울시 주도의 다양한 혁신사업(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복지 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의 성숙도는 높지 않은 편임

○ 단체 회원 및 시민 참여도의 변화 흐름

- 동북1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현재 활동 중인 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의 참여가 늘고 있는지에 대한 서베이에서는, '매우 그렇다' 12건(8.4%), '그렇다' 64건(44.8%)등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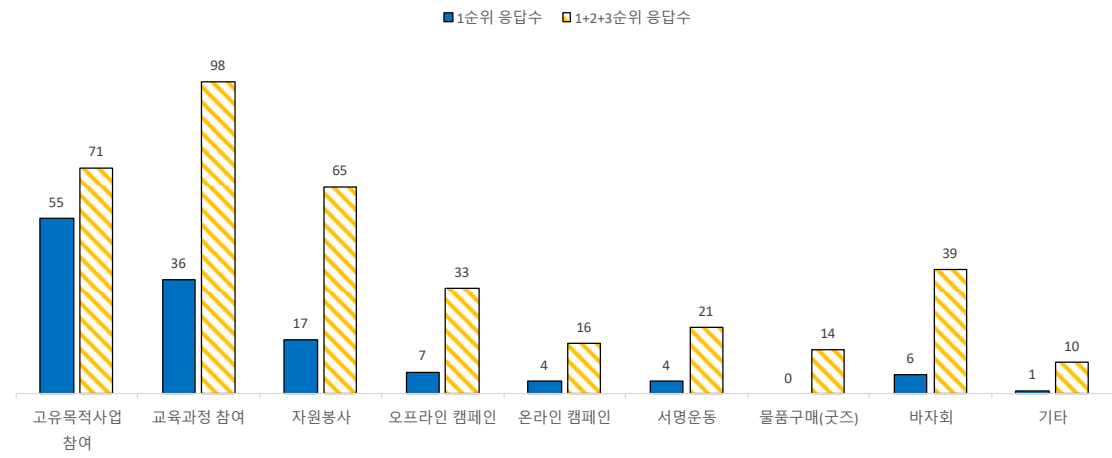
〈그림 3-13〉 3년 이내 단체 회원 및 시민 참여 증가 여부



○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 형태

- 동북1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면 주로 어떤 형태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교육과정 참여’, ‘고유목적사업 참여’, ‘자원봉사’, ‘바자회’ 순으로 나타남
- 고유목적사업에 참여한다고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응답을 받아본 결과, 공모 사업 등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주도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61건 중 18건으로 약 30%에 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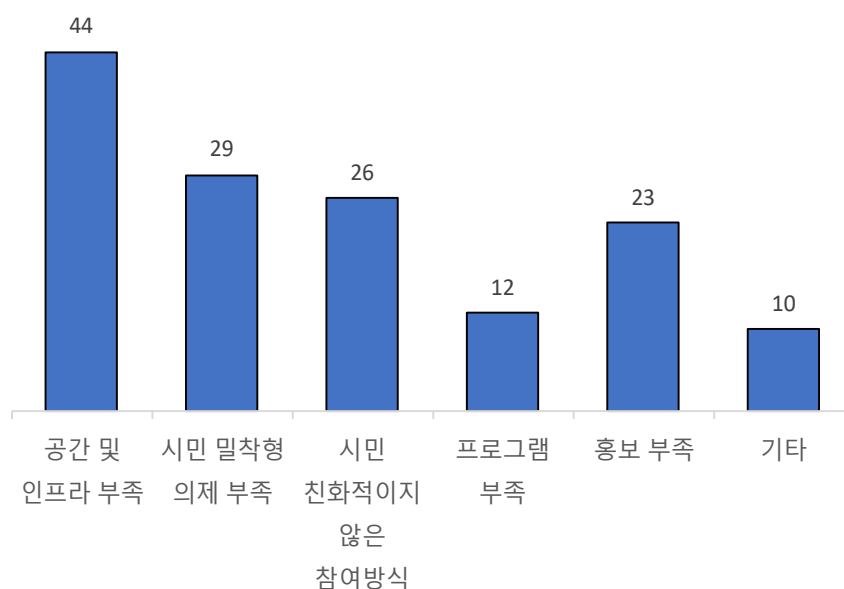
〈그림 3-14〉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 형태



○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방해요인

- 반면에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본 설문 항목에서는 ‘공간 및 인프라 부족’이 44건(30.6%), ‘시민 밀착형 의제 부족’이 29건(20.1%), ‘시민 친화적이지 않은 참여방식’이 26건(18.1%), ‘홍보부족’ 23건(16%)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그림 3-15〉 시민 참여 방해 요인



○ 각 자치구별 활동가 FGD를 통해 지역 내 주민 참여도 변화에 대한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 3-20〉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는 모두 주민들의 공익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행사, 보조금 사업 등이 확대된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기관을 통해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활동가로 정착하고 조직화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3-20〉 주민참여도 변화에 대한 활동가 인식 (FGD 결과)

자치구	FGD 주요 의견
성동구	“프로그램, 축제를 통한 주민 참여도 ↑” “보조금 사업 등 1차적 참여에만 그쳐” “활동가로 조직화되고 있지 않음” “주민참여가 일부 영역에만 국한됨” “교육 부재로 주민참여 역량 발전 더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례”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늘어” “사회적경제 영역 참여 ↑, 특히 도시재생 ” “동대문구 비거주 생활 주민 참여도 ↑” “목적 없는 참여에 그쳐” “학부모 교육공동체 활동 참여 증대”
동대문구	“행정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높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많음” “공익활동, 자원봉사 참여율 높은 편” “참여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행정에서 원하는 것 사이의 괴리”

3) 지역 시민사회 특성에 대한 활동가 인식

- 각 자치구별 활동가 FGD를 통해 시민사회 특성 및 최근 5년 내의 변화 등에 대한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 3-21〉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광진구와 성동구는 시민사회 역량이 강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동대문구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고 인식함
 - 광진구는 지역 내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성동구 역시 지역 내 활동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 반면에, 동대문구는 개별 의제 중심으로 활동하며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청년, 50+ 등 시민사회 영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활동가로의 유입 및 정착하는 비율이 낮음

〈표 3-21〉 지역 시민사회 특성에 대한 활동가 인식 (FGD 결과)

자치구	FGD 주요 의견
성동구	“지역 내 활동가 많고 네트워크 잘됨”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함” “행정주도 정책에 지쳐 의욕 저하되기도”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50대 이상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는 청년 등장” “신규활동가 유입 적고, 유입되더라도 실망하고 이탈하는 사람이 많음”
광진구	“시민사회역량 강한 편” “공론장, 행정감시 등 주민 참여 활성화” “의제보다 활동가/네트워크 중심” “교육, 여성, 노동 분야에 대한 활동 ↓”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 “청년들의 활동가 유입이 없음”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 의제 증가”
동대문구	“시민사회가 다룰 대상의 축소” “개별 의제 위주로 활동 & 공통 의제 없음” “민간 네트워크가 쉽게 무너짐” “청년은 많지만 청년 활동은 적음” “민간이 아닌 서울시(중간지원조직) 중심으로 의제 정해지고 확대” “각자 이해관계그룹끼리 사업 위주 활동”

4) 활동가의 활동환경에 대한 활동가 인식

- 각 자치구별 활동가 FGD를 통해 활동가들의 활동 환경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 3-22〉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광진구와 동대문구 활동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청년 등 신규 활동가가 유입되고, 이들이 활동가로 정착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광진구는 시민기금 등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가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지원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임

- 동대문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청년 층이 전통적인 시민사회영역보다는 사회적 경제로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의견임
- 성동구는 생계 문제로 인해 선배 활동가들이 이탈하면서 후배를 양성하지 못하고, 직업적 안정성이 낮아 신규 활동가 유입이 어렵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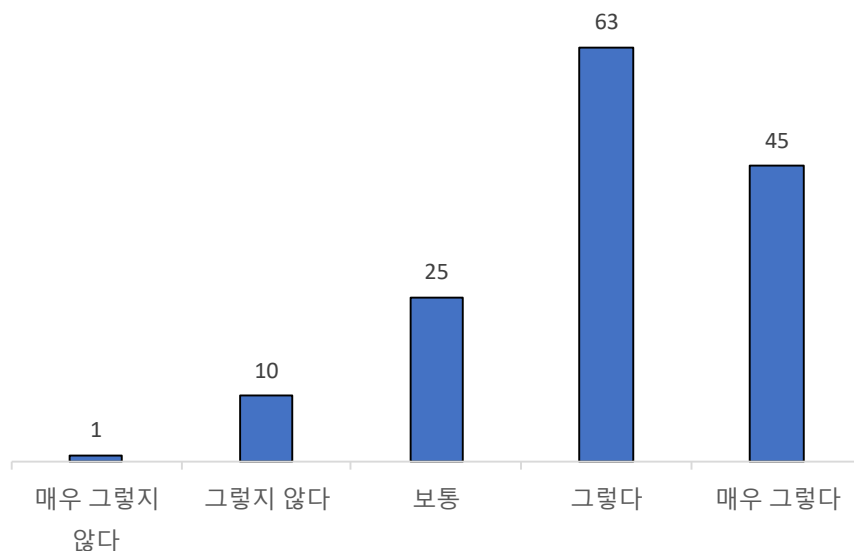
〈표 3-22〉 활동가의 활동 환경에 대한 인식 (FGD 결과)

자치구	FGD 주요 의견
성동구	<p>“활동가 개념, 범위, 정체성에 대한 혼란” “활동가들의 전문성 부족” “활동의 기반이 될 안정적 공간이 없음” “짖은 이직으로 인해 활동 지속성 및 후배 양성 능력↓” “활동가에 대한 일반인 인식도 낮음” “신규 활동가 유입 없고 어려운 환경” “급여 및 직업 안정성 낮고 경력 인정 X”</p>
광진구	<p>“선배활동가가 많아 배우기 좋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존재” “예전보다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 “저녁이 있는 삶, 문화, 노동 복지 필요” “주거, 업무 공간 마련 필요” “동료들과 공익적 목표를 공유하고, 뚜렷한 사명감으로 동기부여 될 것 같음”</p>
동대문구	<p>“개인 생계 부담이 커 공익활동 어려움” “생계 활동과 공익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경제적문제로 청년은 사회적경제만 관심” “여력이 안돼 단체간 서로 협력하지 못함” “신규 활동가 유입이 어려움” “삶과 가치가 일치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음”</p>

라. 권역 내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 활동

- 동북1권 권역 내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활동은 자치구별 기초조사를 통해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현황 이외에는 드러나 있는 것이 없었고, 서베이를 통해 활동가 및 공익단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 활동가 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약 40%는 공식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는 교류를 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에 더해, 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를 할 기회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활동가 및 공익단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 필요성 인식
 - 활동가 및 공익단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서베이 결과, ‘매우 그렇다’가 45건(31.3%), ‘그렇다’가 63건(43.8%)으로 대부분의 활동가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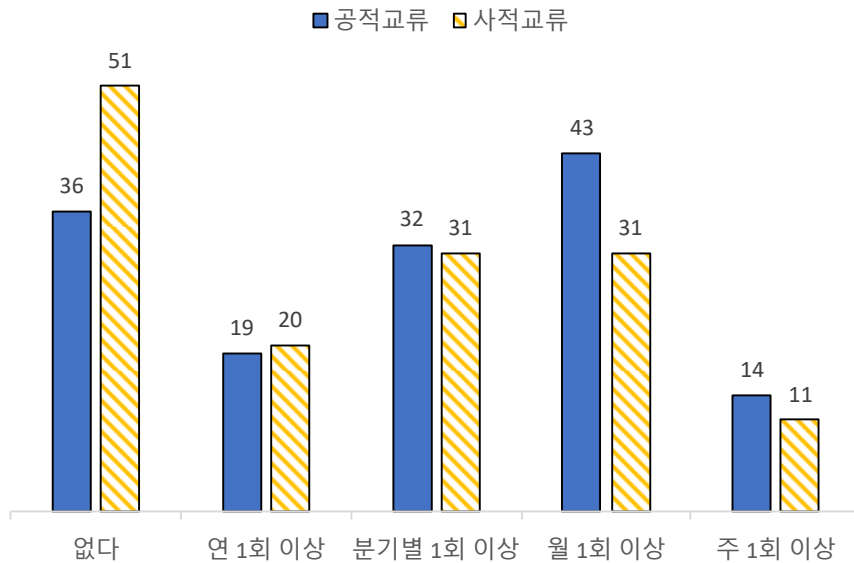
〈그림 3-15〉 활동가/단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 필요성



○ 공적/사적 교류 현황

- 실제로 얼마나 공적/사적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없다’와 ‘연 1회 이상’ 등, 거의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응답의 비율이 공적 교류에서는 55건(38.2%), 사적 교류에서는 71건(49.3%)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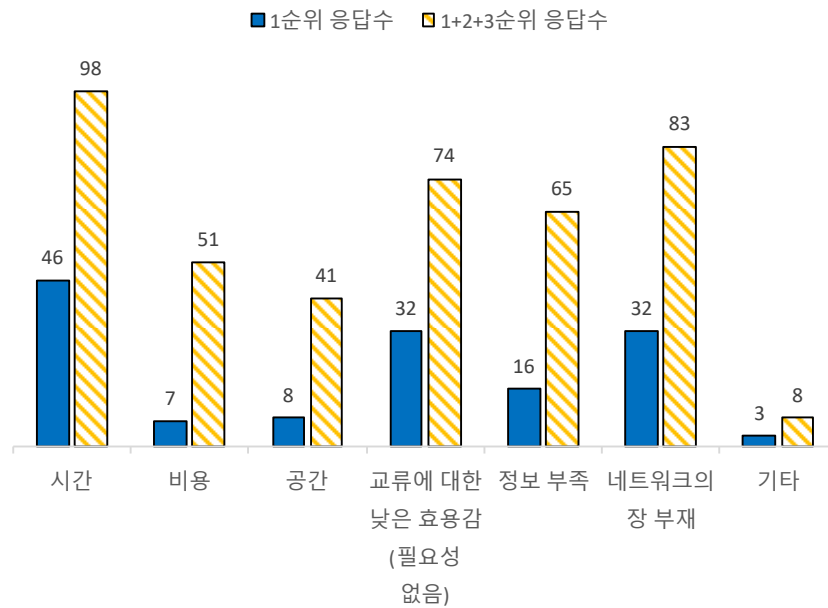
〈그림 3-16〉 공적교류 및 사적교류 현황



○ 활동가 간 교류에 방해되는 요인

- 권역 내 활동가 간 교류를 하는데 있어 방해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시간 부족’, ‘네트워크의 장 부재’, ‘교류에 대한 낮은 효용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7〉 활동가 간 교류에 방해되는 요인



4. 동북1권 시민사회 지원기관 및 자원 현황

가. 시민사회 지원기관 현황: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 민간재단 등

○ 자치구별 지역 기초 조사를 통해 자치구 내에 있는 시민사회 지원기관들을 확인하였고, 각각 <표 4-1>, <표 4-2>, <표 4-3>의 내용과 같음

- 성동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확인된 기관 수는 9개로, 그 중 중간지원조직은 7개, 공공기관은 2개로 나타남

<표 4-1> 성동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No.	자원유형	조직명	운영주체	목적	상근자수
1	중간지원조직	성동구청년지원센터	성동청년플랫폼	1인가구 청년지원, 청년네트워크조직, 청년커뮤니티지원	4명
2	중간지원조직	성동구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성동마을넷 '동네'	마을공동체공모사업, 교육, 주민조직지원	5명
3	중간지원조직	성동구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교육, 상담, 컨설팅, 공동마케팅, 생태계조성	5명
4	중간지원조직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동부비정규직센터	노동상담, 법률지원,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4명
5	중간지원조직	성동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임대주택 상담, 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	2명
6	중간지원조직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양대학교	어린이집지원, 공동교육, 가정양육지원	14명
7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사업단	마장동주민자치회	자치구 복지기금 배분, 정책개발, 교육 등	10명
8	공공기관	성동문화재단	(재)성동문화재단	문화프로그램운영, 극장운영, 문화프로젝트 진행	8명
9	공공기관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사)성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교육, 봉사처 - 봉사자매칭, 봉사문화 확산캠페인	141명

- 광진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확인된 기관 수는 9개로, 그 중 중간 지원조직은 6개, 공공기관은 3개로 나타남

〈표 4-2〉 광진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No.	자원유형	조직명	운영주체	목적	상근자 수
1	중간지원조직	광진구마을자치센터	(사)광진시민허브	서울형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11명
2	중간지원조직	광진구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3명
3	중간지원조직	‘무중력시대 ’ 광진구청년센터	(주)인생도서관	공간운영, 청년 취창업, 청년커뮤니티, 지역연계	4명
4	중간지원조직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상담, 노동조합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5명
5	중간지원조직	광진구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임대주택 상담, 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	2명
6	중간지원조직	건국대학교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건국대학교	사회적경제 협력 거버넌스 구축	3명
7	공공기관	광진문화재단	광진구청	자치구 문화예술 활성화	16명
8	공공기관	광진복지재단	광진구청	자치구 복지기금 배분, 정책개발, 교육 등	10명
9	공공기관	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	흥사단	청소년 취미활동, 교육프로그램	37명

- 동대문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현황 조사 결과, 확인된 기관 수는 3개로, 그 중 중간지원조직은 2개, 공공기관은 1개로 나타남

〈표 4-3〉 동대문구 내 시민사회 지원기관

No.	자원유형	조직명	운영주체	목적	상근자 수
1	중간지원조직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서울문화네트워크	민관협력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 자치 실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사업 등	6명
2	중간지원조직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잇다마켓, DDM 일자리발전소 등	5명
3	공공기관	동대문문화재단	(재)동대문문화재단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치를 구민과 공유, 지역축제, 문화예술공모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	5명

나. 시민사회 자원 현황: 공유 공간과 자원 현황

○ 자치구별 지역 기초 조사를 통해 자치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 및 공유공간 자원들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조사 결과는 〈표 4-4〉, 〈표 4-5〉, 〈표 4-6〉과 같음

- 성동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현황 조사 결과, 확인된 공간 수는 39개로, 그 중 공
공시설은 32개, 공유공간은 7개로 나타남

〈표 4-4〉 성동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No.	자원유형	공간명	운영주체	공유가능 공간	보유시설	비고
1	공공시설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강당	탁자, 의자, 음향설비, 빔프로젝트	200명규모
2	공공시설	마장동주민센터	성동구	다목적실(50명)	탁자, 의자, 빔프로젝트, 사회대	50명규모
3	공공시설	도선동주민센터	성동구	주민사랑방(10명), 어울림방(60명), 나눔방(20명)	탁자, 의자, 빔프로젝트	10명~60명규모
4	공공시설	성수1가2동 주민센터	성동구	다목적실(50명)	탁자, 의자	50명규모
5	공공시설	마장동주민센터	성동구	작은도서관(20명)	탁자, 의자, 빔프로젝트	20명규모
6	공공시설	마장동주민센터	성동구	3층수수공방(20명)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20명규모
7	공공시설	성수2가1동 주민센터	성동구	2층회의실 (30명)	마이크, 탁자, 의자	30명규모
8	공공시설	성수2가1동 주민센터	성동구	다목적실(50명)	책상, 의자	50명규모
9	공공시설	용답동주민센터	성동구	대회의실(60명)	탁자, 의자, 빔프로젝터, 방송시설	60명규모
10	공공시설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주민사랑방(15명)	원형테이블, 의자, 빔프로젝트	15명규모
11	공공시설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다목적실(30명)	테이블, 의자, 마이크	30명규모
12	공공시설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어린이쉼터(12명)	싱크대, 요리도구	12명규모
13	공공시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성동구	방과후공부방(16명)	책상, 의자, 마이크	16명규모
14	공공시설	성수2가3동 주민센터	성동구	문화교실(20명)	책상, 의자	20명규모
15	공공시설	성수2가3동 주민센터	성동구	다목적실(40명)	책상, 의자	40명규모
16	공공시설	성수2가3동 주민센터	성동구	주민사랑방 (10명)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10명규모
17	공공시설	성수1가1동 주민센터	성동구	문화교실(15명)	책상, 의자	15명규모
18	공공시설	성수1가1동 주민센터	성동구	다목적실(30명)	책상, 의자	30명규모
19	공공시설	금호1가동 주민센터	성동구	공유부엌(15명)	싱크조리대, 공유서가대, 책상, 의자	15명규모

No.	자원유형	공간명	운영주체	공유가능 공간	보유시설	비고
20	공공시설	금호1가동 주민센터	성동구	다목적실(50명)	음향장비, 탁자, 빔프로젝트	50명 규모
21	공공시설	금호1가동 주민센터	성동구	북카페(10명)	카페시설, 작은도서관	10명 규모
22	공공시설	송정동 주민자치회관	성동구	다목적실(30명)	음향시설, 의자	30명 규모
23	공공시설	용답동주민센터	성동구	작은도서관(30명)	탁자, 의자	30명 규모
24	공공시설	송정동주민센터	성동구	작은도서관(10명)	책상, 의자	10명 규모
25	공공시설	응봉동주민센터	성동구	소회의실(18명)	책상, 의자	18명 규모
26	공공시설	행당2동주민센터	성동구	공유공간(20명)	책상, 의자	20명 규모
27	공공시설	금호2-3가동 자치회관	성동구	3층다목적방(50명)	책상, 의자, 마이크	50명 규모
28	공공시설	금호2-3가동 자치회관	성동구	동아리방(10명)	책상, 의자	10명 규모
29	공공시설	금호4가동 주민센터	성동구	작은도서관(10명)	책상, 의자	10명 규모
30	공공시설	금호4가동 주민센터	성동구	자치사랑방(7명)	책상, 의자	7명 규모
31	공공시설	금호4가동 주민센터	성동구	다목적실(50명)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접이식테이블	50명 규모
32	공공시설	용답동토속공원	성동구	주민활력소(15명)	테이블, 의자	15명 규모
33	공유공간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2층 카페공간(30명)	테이블, 의자	30명 규모
34	공유공간	플레이스온	성동구청년지원센터	카페, 교육장(20명)	테이블, 의자, 빔프로젝트	20명 규모
35	공유공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10명)	테이블, 의자	10명 규모
36	공유공간	마을공동체 성수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회의실(10명)	책상, 의자	10명 규모
37	공유공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30명)	책상, 빔프로젝트, 의자	30명 규모
38	공유공간	헤이그라운드	루트임팩트	다목적홀(100명) 세미나룸(40명) 등	책상, 빔프로젝트, 의자, 테이블 등	공간별 상이
39	공유공간	카우앤독	카우앤독	세미나룸(6~18명) 컨퍼런스룸(50명) 등	책상, 빔프로젝트, 의자, 테이블 등	공간별 상이

- 광진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현황 조사 결과, 확인된 공간 수는 7개로, 그 중 공공 시설은 1개, 공유공간은 6개로 나타남

〈표 4-5〉 광진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No.	자원유형	공간명	운영주체	공유가능 공간	보유시설	비고
1	공공시설	서울동부여성 발전센터	(사)여성이만드는일 과미래 (민간)	교육실, 작업실, 회의실, 강당,	빔프로젝터, 스피커 등	
2	공유공간	공유공간 '나눔'	공유공간 '나눔' 협동조합(민간)	사무공간, 회의실, 공연장 등	빔프로젝터, 스피커 등	
3	공유공간	광진무중력지대 청년센터	(주)인생도서관 (민간)	코워킹스페이스, 작업실, 회의실	빔프로젝터, 3D프린터 등	
4	공유공간	광진청년일자리 카페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공공)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빔프로젝터 등	
5	공유공간	문화예술창작소 마당	문화예술창작소 마당	시설대관, 회의실, 교육실	빔프로젝터, 스피커, 방음시설	
6	공유공간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아차산아래 놀자	교육실, 회의실, 시설대관	빔프로젝터, 스피커	
7	공유공간	함께누리	함께누리협동조합	공연장, 회의실	빔프로젝터, 스피커	

- 동대문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현황 조사 결과, 확인된 공간 수는 36개로, 그 중 공공시설은 32개, 공유공간은 4개로 나타남

〈표 4-6〉 동대문구 내 시민사회 공유공간

No.	자원유형	공간명	운영주체	공유가능 공간	보유시설	비고
1	공공시설	홍릉문화복지센터	동대문구	연습실, 공연장, 사무실	전면거울, 무용연습실	120㎡
2	공공시설	동대문구정보화 도서관	동대문구	세미나실, 사랑방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20명 규모
3	공공시설	전농힐링브릿지	전농청소년 독서실	세미나실, 강의실	정수기,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20명 규모
4	공공시설	답십리 꿈꾸는 도서관	동대문구	강의실	탁자, 의자, 빔프로젝트	20명 규모

No.	자원유형	공간명	운영주체	공유가능 공간	보유시설	비고
5	공공시설	답십리 청소년 독서실	동대문구	강의실, 연습실	전면거울, 탁자, 의자	20명 규모
6	공공시설	배봉꿈마루 청소년 독서실	동대문구	강의실, 세미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20명 규모
7	공공시설	답십리 도서관	동대문구	동아리실, 세미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40명 규모
8	공공시설	청량리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동대문구	강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30명 규모
9	공공시설	전농동 어린이도서관 꿈틀	서울시	강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20명 규모
10	공공시설	전농동 하늘꿈문고	서울시	강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20명 규모
11	공공시설	배봉산자연드림	동대문구	강의실 (컨테이너형)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10명 규모
12	공공시설	뜨락작은도서관	동대문구	강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20명 규모
13	공공시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	대형강당, 강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트	80명 규모
14	공공시설	한방진흥센터	동대문구	대형강당, 공유주방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트, 조리시설	60명 규모
15	공공시설	휘경동 어린이 도서관	동대문구	회의실, 세미나실	탁자, 의자	50명 규모
16	공공시설	이문 어린이 도서관	동대문구	도서관	좌식 테이블	60명 규모
17	공공시설	이문 꿈꾸는 작은 도서관	이문1동	도서관	좌식 테이블	30명 규모
18	공공시설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시설	766㎡
19	공공시설	장안동벚꽃길 작은 도서관	동대문구	세미나실 (컨테이너형)	탁자, 의자	20명 규모
20	공공시설	용두어린이 영어도서관	동대문구	강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트	20명 규모
21	공공시설	서울바이오허브	서울시	세미나실 컨퍼런스홀	탁자, 의자, 빔프로젝트	12~100명 규모
22	공유공간	회기동 마을활력소	열린사회시민연합회	공유카페, 세미나실, 사랑방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20명 규모
23	공유공간	샬터 사회적 협동조합	샬터 사회적협동조합	강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트	30명 규모
24	공유공간	도꼬마리 카페	도꼬마리	카페 공간	탁자, 의자	20명 규모
25	공유공간	헤민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민간)	세미나실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15명 규모
26	공유공간	우리동네친구들 배우다	육아모임공유공간(민간)	세미나실	정수기, 탁자, 의자, 스피커, 빔프로젝트	15명 규모

- 그 밖의 시민사회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동북1권 통합워크샵을 통해 파악해 보았고 <표 4-7>과 같이 자치구별로 공간(인프라), 사람, 재원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음
- 자치구별 자원들을 확인한 이후에 자치구 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의견을 나누어보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선배활동가의 공유, 타 자치구의 사례에 대한 배경지식 및 노하우 등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7> 동북1권 시민사회 활용가능 자원 (워크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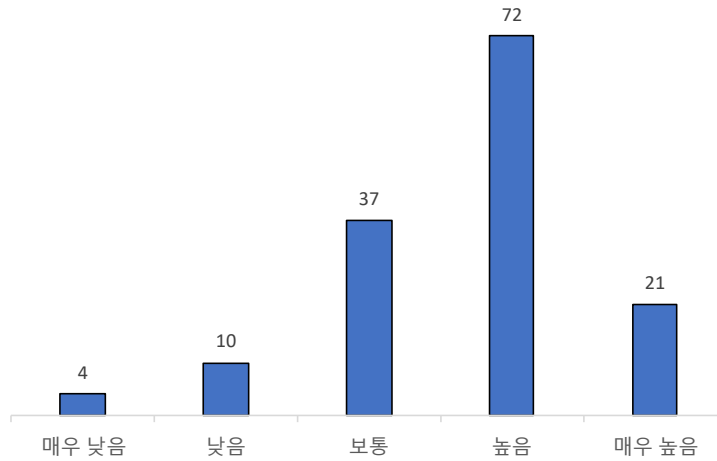
구분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공간(인프라)	책업책아(작은도서관) 취지에 동의하는 사업가들 헤이그라운드, 카우앤독 등 건강한치과 논골신포 한양대학교	동부여성발전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공유공간 나눔 건국대학교 광진정보도서관 지역작은도서관 마을활력소 사회적경제 공간 보유단체 광진경찰서	동대문구 위탁공간 서울바이오허브 작은도서관들 컨텐츠진흥원 무중력시대(조성중) 대학들
사람	성동구청 공무원 청년활동가(토착민, 외지인) 구의원들 지속가능한고민해결단 (성동인 설립위원회) 소셜밸런스 소셜벤처 선배활동가 마을넷 정회원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52명 연석회의 12명 네트워크 단체들 사업 참여자들 활동가 선배님들 청년 활동가들	대학생 연구단지 인력
재원	사회적경제 기금 자활기금(행정영역)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 일일호프 등 회비 청년자율예산(5억) 도시재생사업(5곳)	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출자금 자체회비	청년자율예산 협치예산

5. 동북1권 NPO지원센터 설립 수요와 요구

가. 동북1권 NPO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 수요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북1권 활동가들은 대체로 본인의 활동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원하고 있음
- 동북1권 공익단체들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활동가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참여를 위한 비용/시간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북1권 활동가들은 자산화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동가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내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주민의 권한과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활동 공간, 재정 지원, 네트워킹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지역 내 소통 창구로서 단체간 교류를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냄
-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
 - 활동가로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설문 진행 결과, '매우 높은 수준' 21건(14.6%), '높은 수준' 72건(50%)으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4.6%였음. '보통이다' 37건(25.7%)까지 합하면 전체 약 90%의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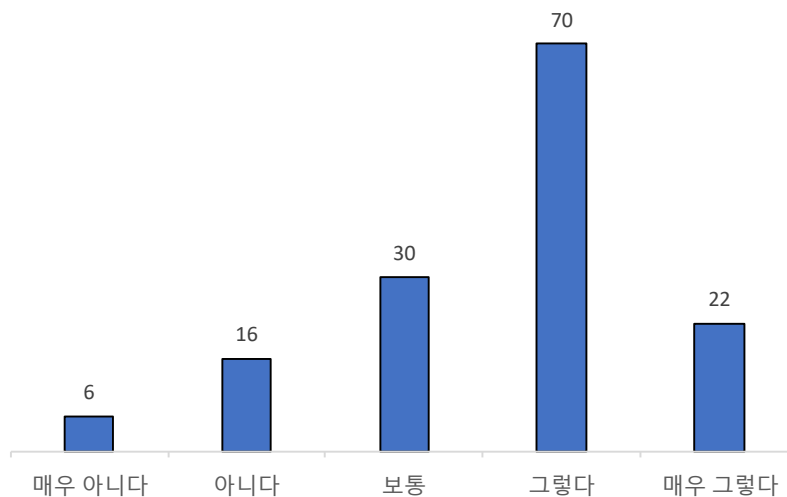
〈그림 5-1〉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



○ 활동가 본인 스스로의 전문성 인식

- 동북1권 활동가들은 스스로 현재 활동하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 22건(15.3%), ‘그렇다’ 70건(48.6%)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전체의 63.9%로 나타났다.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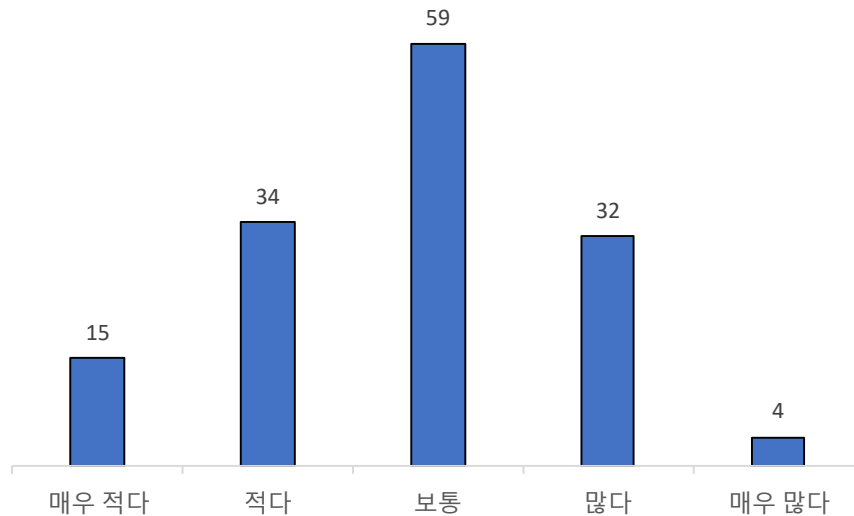
〈그림 5-2〉 활동가 본인 스스로의 전문성 인식



○ 소속 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수준

- 현재 활동하는 단체는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 '보통이다'가 59건(41%)으로 가장 많았음. '매우많다', '많다' 등 긍정적인 응답이 36건(25%)인 것에 비해 '매우적다', '적다' 등 부정적인 응답이 49건(34%)으로 다소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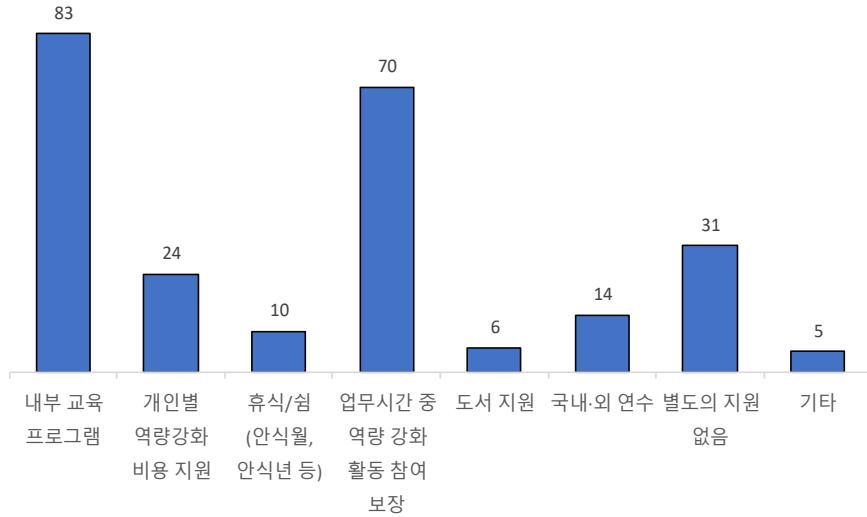
〈그림 5-3〉 소속 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수준



○ 소속 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내용

- 현재 활동하는 단체에서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내부 교육프로그램'이 83건(34%), '업무시간 중 역량 강화 활동 참여 보장' 70건(29%), '별도의 지원없음' 31건(13%), '개인별 역량강화 비용 지원' 24건(1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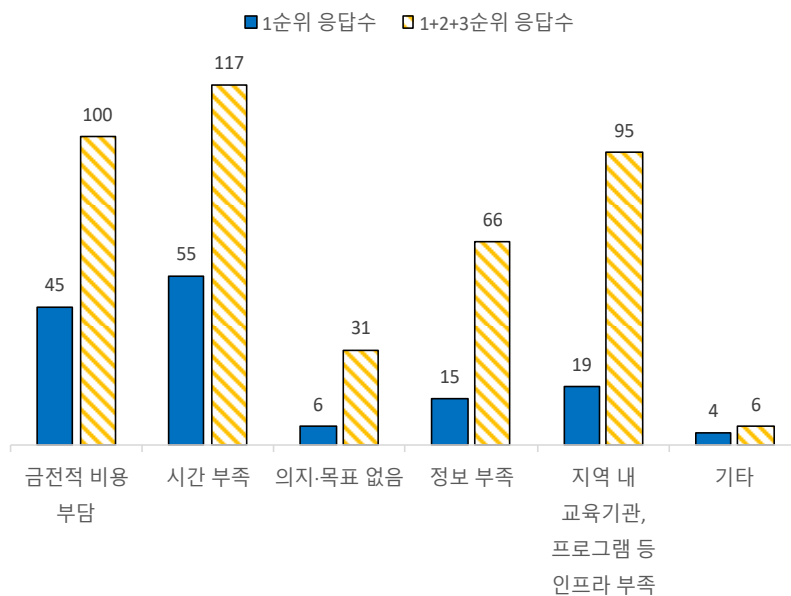
〈그림 5-4〉 소속 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내용



○ 역량 강화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

- 활동가들이 역량강화를 하는데 있어 가장 방해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시간부족’, ‘금전적 비용 부담’, ‘지역 내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 인프라 부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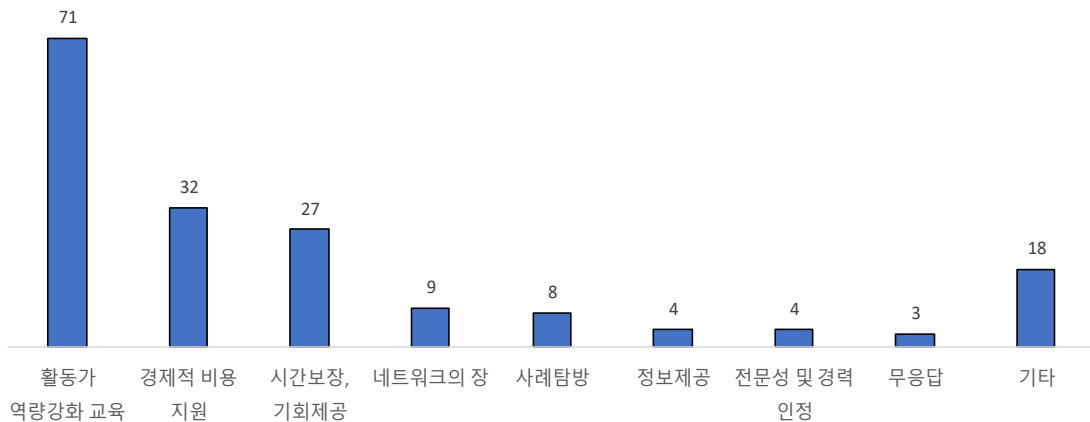
〈그림 5-5〉 역량 강화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



○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

- 활동가들이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자원에 대한 주관식 설문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정리해보면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경제적 비용 지원’, ‘시간보장 및 기회 제공’, ‘네트워크의 장’, ‘사례탐방’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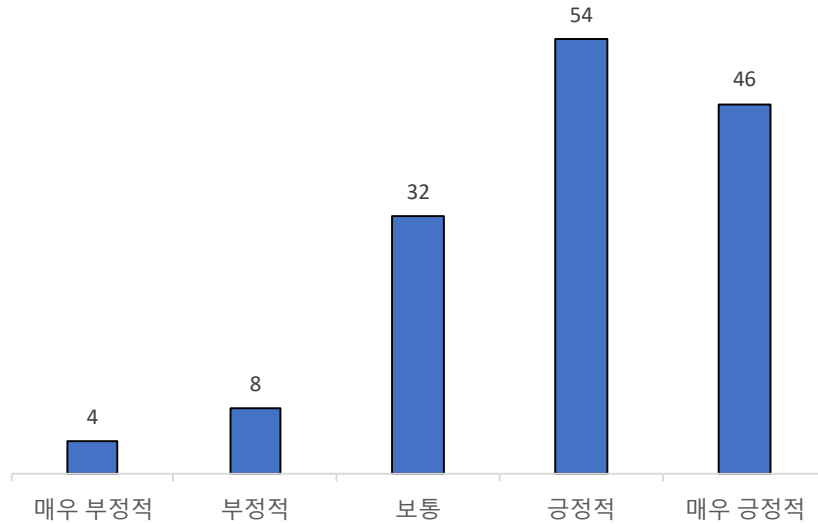
〈그림 5-6〉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



○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동북1권역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동북1권 활동가들의 의견을 묻는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 46건 (31.9%), ‘필요하다’ 54건(37.5%) 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69.4%로 나타났음.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는데 거부감이 없거나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남

〈그림 5-7〉 동북1권역 내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성



○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중간지원 조직 신규설립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베이 추가 문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 키워드 분석 결과,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형성 기반 제공 가능’, ‘지역 내 소통 창구 및 중재 역할 가능’, ‘지원의 전문성 및 지속성’ 등의 의견이 주로 있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이미 중간지원조직이 너무 많다’는 의견과 ‘정확한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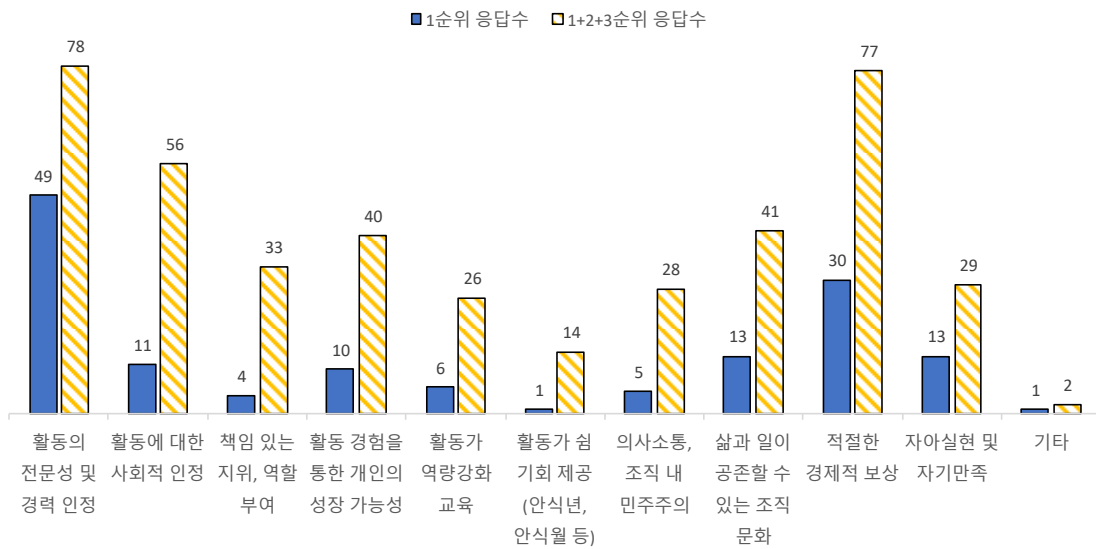
〈표 5-1〉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긍정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형성기반 제공 가능 - 지역 내 소통 창구와 중재 역할 가능 - 지원의 전문성, 지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중간지원조직이 너무 많음 - 정확한 역할이 불분명하고 애매함

○ 활동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

- 활동가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활동의 전문성 및 경력 인정', '적절한 경제적 보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삶과 일이 공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활동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장 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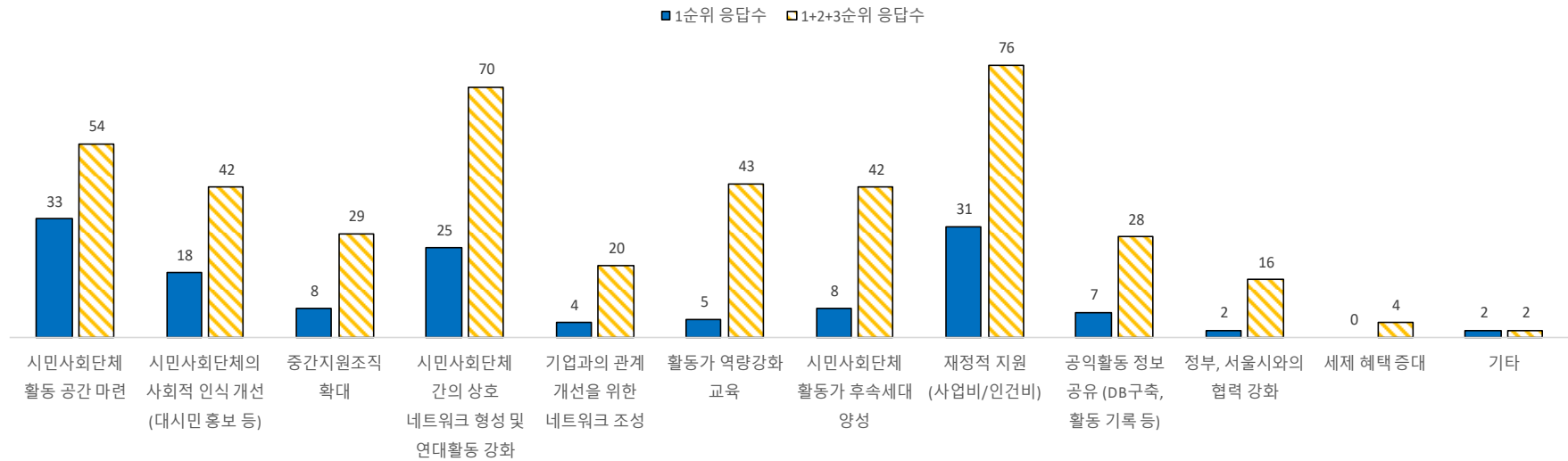
〈그림 5-8〉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



○ 동북1권역 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서베이)

- 동북1권역 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그림 5-9〉에서와 같이 '재정적 지원(사업비/인건비)', '시민사회단체 간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활동 강화', '시민사회단체 활동 공간 마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5-9〉 동북1권역 내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중요한 것



○ 동북1권역 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FGD)

- 각 자치구별 활동가 FGD를 통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 5-2>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성동구는 지역 자산화, 수익사업 및 기금 모금활동, 조직의 자율성 보장, 시민사회 연합체, 지역 내 시민사회 자원 간 연결 등을 의견으로 제안함
- 광진구는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지역 자산화, 주민 참여와 권한의 확대, 홍보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의견으로 제안함
- 동대문구는 활동가 양성을 위한 제도/교육/네트워킹의 필요, 시민사회단체 간 협업 및 교류 등을 의견으로 제안함

<표 5-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FGD 결과)

자치구	FGD 주요 의견
성동구	“공간 확보를 위한 자산화” “수익사업 및 기금 모금 활동” “시민사회 조직의 자율성 보장” “주민 권한의 확대” “협상력이 있는 민간 기반의 연합체” “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처우 마련” “시민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한양대 학생들과의 연계 시도”
광진구	“지역 및 시민자산화를 통한 기반 마련” “행정·정책 분야 활동가 전문성 향상” “주민참여와 권한의 확대” “의제별 양질의 교육을 통한 동기부여” “사업 위주 지원보다는 새로운 활동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상시적 지원 필요” “활동가들과 단체에 대한 홍보” “시민모금·정부지원 통한 인건비 지원”
동대문구	“활동가 양성을 위한 제도, 생태계 마련”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 “예비활동가들의 관심과 밀접한 의제 연구 및 활동가 교육 진행” “활동가로서의 자부심을 만들어야” “시민단체 간 협업, 교류를 위한 허브” “활동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네트워킹” “타 자치구의 선진사례 탐방 및 교류”

나. 동북1권 NPO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와 요구

- 동북1권 활동가들은 권역NPO지원센터가 활동가들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주체 간 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었음

- 동북1권 통합 워크숍을 통해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윈도우패닝 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별로 정리한 결과, 활동가의 인건비 및 복지지원, 활동가 발굴/양성/교육 체계 구축, 지역 기금 마련, 공간 및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을 공통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무엇보다 활동가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각 자치구별 활동가 FGD를 통해 활동가들이 바라는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 5-3>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성동구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성과를 존중하면서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활동가/시민사회 조직/민간 네트워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였으며, 권역차원의 NPO파트너페어를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 광진구의 활동가들은 활동가의 삶 지원, 지역 연구, 시민역량 강화 교육, 활동가 간 소통 창구, 직접 사업이 아닌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하였으며, 자치구 단위의 NPO지원센터에 대한 니즈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대문구의 활동가들은 활동가들의 인건비, 수당 등 처우보장, 시민단체들의 교류를 위한 허브, 시민단체 대상 후원 연계, 신규활동가 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 직접 사업이 아닌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었음

〈표 5-3〉 활동가가 바라는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FGD 결과)

자치구	FGD 주요 의견
성동구	“시민사회단체 역할과 성과 존중 필요” “민간 네트워크의 역량 강화 지원” “신규 활동가 발굴, 양성, 성장 지원” “조직 컨설팅 및 법률 지원” “권역 차원의 NPO파트너페어 개최” “지역 내 NGO, NPO 연구 및 인식조사”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욕구 반영” “지역 간,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
광진구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활동가의 삶을 지원하는 기관” “하고싶지만 못했던 지역 대상 연구진행” “서로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 간에 협의체적 소통 역할” “철저하게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권역이 아닌 자치구 단위의 NPO지원센터”
동대문구	“시민단체들의 교류를 위한 허브” “직접 사업이 아닌 서포트 역할” “신규 활동가 발굴, 양성, 통합교육 및 신입 가이드북 등을 통한 진입장벽 낮추기” “활동가들의 처우 보장” “인건비, 활동가 수당 지원” “시민단체 대상 후원 정보 공유 및 연계”

○ 동북1권 통합 워크숍을 통해 각 구별로 동북1권 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음. 그룹토의를 거쳐 윈도우패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표 5-4〉과 같음

- 워크숍에서 성동구 활동가 그룹은 권역NPO센터가 가져가야 할 역할에 대해, 지역 활동가 채용, 권역 기금 마련, 활동가 지원 (인건비), 정보 공유 플랫폼, 활동가 지원 (복지체계) 등의 순서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가급적이면 지역의 활동가들을 채용하고, 권역기금을 마련하고 활동가의 인건비와 복지를 지원하는 등 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보장하고, 연구나 교육 관련 사업에서 권역NPO지원센터로 인해 활동가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특히, 권역NPO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보다 활동가가 중심이 되는 방향

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었음

- 또한 채용, 공간, 자원, 사업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워크샵에서 광진구 활동가 그룹은 권역NPO센터가 가져가야 할 역할에 대해 활동가를 위한 체계적 복지체계, 지역 금융기관 설립 및 공동기금 마련, 활동가 발굴/양성/교육 지원, 중간지원조직 결집, 유희 공간 발굴 및 활성화와 정보 공유 플랫폼 등의 순서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특히 여행이나 연수 등 활동가의 쉼을 지원하고, 지역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등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활동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가장 강조하였으며,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 시니어 활동가 재진입 지원, 타 자치구 지역시민사회 탐방 등 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중추로서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었음
 - 또한 NPO 관련 중간지원조직 정보 및 유희 공간 정보 등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권역NPO지원센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음
- 워크샵에서 동대문구 활동가 그룹은 권역NPO지원센터가 가져가야 할 역할에 대해 활동가 발굴/양성/교육 지원, 정보 공유 플랫폼, 권역(지역) 조사 및 의제 발굴, 활동가 지원 (복지체계), 권역 공동 지원 사업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함
-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하는 활동가들에게 활동가의 삶, 사업계획과 추진, 예산활용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식년/월 지원, 활동가 기본소득 실험 등 활동가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지원함으로써 활동가들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됨
 - 온라인을 통해 구/시/정부의 정책사업과 권역별 공간 정보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NPO지원센터를 기대하는 시각, 권역 차원에서의 역할로 세무, 법률, 디자이너 등 전문성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의제 관련 조사 연구를 통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주는 역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표 5-4〉 활동가가 바라는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워크숍 결과)

자치구	결과 의견 (우선순위 순)	
성동구	1. 지역 활동가 채용(지역밀착형) 2. 권역기금 마련 3. 활동가 지원 (인건비) 4. 정보 공유 플랫폼 5. 활동가 지원 (복지체계)	6. 연구사업 (지역활동가에 위탁) 7. 교육사업 (지역활동가에 위탁) 8. 홍보 9. 자산화 교육
광진구	1. 체계적 복지체계 2. 지역 금융기관 설립, 기금 마련 3. 활동가 발굴/양성/교육 4. 중간지원조직 결집 기능 5. 유희 공간 발굴 및 활성화 → 정보 공유 플랫폼 역할	6. 의제 대응 지원(금전, 비금전) 7. 주민 밀착형 의제 발굴 → 아카이빙 8. 언론 연계 홍보 9. 지역사회 중장기 비전 수립
동대문구	1. 활동가 발굴/양성/교육 2. 정보 공유 플랫폼 (정책, 공간) 3. 권역(지역) 조사 / 의제발굴 4. 활동가 지원 (복지체계) 5. 권역 공동 지원 사업 (세무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가, S/W 구매 지원 등)	6. 시민사회와 대학, 정부, 지자체 간 연계 지원 및 단체, 활동가 간 네트워크의 장 확대 7. 공간 지원 (임대 보증금)

6. 결론 및 제언

- 노동운동과 지역운동 등 시대적 아젠다를 품으며 성장했던 동북1권 시민사회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와 시민사회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정주 인구비율이 높지 않은 특성과 극단적 세대층의 분리현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기부, 사회단체 활동참여, 자원봉사 등 주민참여도가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시점에서 과거 운동의 아젠다가 변화와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의 지속성이 낮고, 후배 활동가의 신규 유입 및 양성이 어려운 환경임

- 현재 동북1권역 시민사회는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동가의 발굴과 육성, 활동가에 대한 복지체계 구축, 정보 공유 플랫폼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북1권역NPO지원센터는 설립준비에 있어, 이러한 니즈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권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범사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동북1권 시민사회에서 나타난 ‘지역 자산화’를 통한 변화시도는 시민사회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활용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동북1권에서 시도된 지역 자산화는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의 자산적 측면에서의 토대를 마련한 사업임
 - 시민 자산화를 통해 형성된 공간 및 자금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주었음

- 동북1권 시민사회에서 나타난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과 연계한 활동 시도는 청년층의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재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겪고 있는

신규 활동가의 유입과 양성에 대한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동북1권역은 권역내에 다수의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특성이 있음. 현재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대학과 대학의 교과목 및 봉사/참여 프로그램을 상호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 이는 지역적 특성을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돌파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한 결과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활동은 단기적으로 권역 내 시민사회의 신규활동가 유입 및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신규활동가 유입 및 양성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북1권역에서 나타난 지역자산화와 대학생 및 청년들과의 연계활동 등의 모범사례는 권역에서 기대하고 있는 활동가의 발굴과 육성, 활동가에 대한 복지체계 구축,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절묘하게 매칭되고 있음

○ 이러한 모범사례가 하나의 시민사회단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폭넓게 전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공유하고, 적용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준비되고 있는 권역NPO지원센터는 현재의 시민사회단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윤희유역의 역할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

○ 권역만을 위한 지원센터를 지양하고, 각 권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점을 활용하여 현재 시민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1권역은 공유모델로서의 시민자산화, 신규활동가 양성 및 유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ppendix

가. 참고문헌

- 광진문화원(1998).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광진구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진문화원.
- 서울시NPO지원센터·동남권활동가네트워크(2018).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기초조사(동남권 시민사회 지원체계 설계).
- 서울시NPO지원센터·서울연구원(2018).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
- 서울시NPO지원센터·포인트맥리서치(2018).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보고서.
- 서울시NPO지원센터·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2017). 2017 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보고서.
- 신상영, 맹다미(2011).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정책리포트(89), 1-20
- 조철민(2015).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 공간과 사회, 51, 179-211.
- 한국지방자치학회(2009). 2020 성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성동구.
- 서울통계서비스(<https://data.seoul.go.kr>)
- 성동통계연보(<https://www.sd.go.kr/statistics.do>)
- 2030 서울생활권계획 권역생활권계획 - 동북권
(http://urban.seoul.go.kr/4DUPIS/sub3/sub3_10_1.jsp)

나. 설문지

「동북1권역(광진,동대문,성동) 공익활동 기초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제안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동북1권(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지역 공익 활동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동북1권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설문의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호될 것입니다. 응답 결과는 향후 동북1권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한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수행기관 : (주)소셜밸런스, 광진시민허브, 푸른사람들,
성동청년플랫폼
- 담당자 : (주)소셜밸런스 황선웅 팀장
- 연락처 : 070-8814-6696 / spacy@socialbalance.co.kr

2019년 10월

I. 활동가 역량 강화

1. 활동가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3가지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 활동의 전문성 및 경력 인정 ②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③ 책임 있는 지위, 역할 부여
④ 활동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장 가능성 ⑤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⑥ 활동가 쉽 기회 제공 (안식년, 안식월 등) ⑦ 의사소통, 조직 내 민주주의
⑧ 삶과 일이 공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⑨ 적절한 경제적 보상
⑩ 자아실현 및 자기만족 ⑪ 기타 ()
2.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3. 귀하는 스스로 현재 활동하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현재 활동하는 단체에서 귀하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5. 현재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① 내부 교육 프로그램 ② 개인별 재정지원 ③ 휴식/쉽 (안식월, 안식년 등)
④ 업무시간 중 역량 강화 활동 참여 보장 ⑤ 도서 지원 ⑥ 국내·외 연수
⑦ 기타 ()
6. 현재 활동하는 단체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① 매우 많이 한다 ② 많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은 편이다
⑤ 매우 적게 한다
7. 귀하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또는 자원은 무엇입니까?

8. 귀하가 활동가로서 역량 강화를 하는데 있어 가장 방해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방해되는 요인 순으로 3가지만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 금전적 비용 부담 ② 시간 부족 ③ 의지·목표 없음 ④ 정보 부족
⑤ 지역 내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 인프라 부족 ⑥ 기타 ()

16. 공익활동단체나 활동가로서 자치구와 협력하는데 있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순으로 3가지만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활동 자율성 침해 ② 자치구 활동에 대한 견제의 어려움
③ 공무원과의 소통 어려움 ④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⑤ 불합리, 무리한 요구
⑥ 관련 규정 및 담당자의 잦은 변경 ⑦ 기타 ()

Ⅲ. 공익활동 지원 필요성 인식

17. 최근 3년 이내에 현재 활동 중인 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8. 현재 활동 중인 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의 참여가 늘고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가장 많이 늘어나는 순으로 3가지만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고유목적사업 참여 ② 교육과정 참여 ③ 자원봉사 ④ 오프라인 캠페인
⑤ 온라인 캠페인 ⑥ 서명운동 ⑦ 물품구매(굿즈) ⑧ 바자회
⑨ 기타 ()

- 18-1. 18번 문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참여’를 선택했다면, 사업 내용(사업명)은 무엇인가요?
(선택 문항)

19. 현재 활동 중인 단체의 회원이나 시민의 참여가 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공간 및 인프라 부족 ② 프로그램 부족 ③ 시민 밀착형 의제 부족
④ 홍보 부족 ⑤ 시민 친화적이지 않은 참여방식
⑥ 기타 ()

20. 귀하는 동북1권역(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만
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 20-1.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 FGD/워크샵

1) 전체 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내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욕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 - 활동가들의 공론장으로서 관련 의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 도출 - 동북1권 활동가 간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추진방식	동북1권 내 각 자치구별로 활동가를 모집해 각각 1회씩 FGD를 진행하고, 마지막 통합 워크샵을 통해 각 자치구의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적인 결론 도출				
진행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내 활동가들의 공익활동 현장 경험 공유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2) 권역NPO지원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 3) 기초조사 중간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수렴 				
실행	구분	시기	장소	인원 수	대상
	광진구 FGD	10월 15일 10:00~12:00	광진시민허브	6명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그룹 (개인활동가 포함)
	동대문구 FGD	10월 22일 10:00~12:00	다문화도서관 <모두>	5명	
	성동구 FGD	11월 6일 19:00~21:00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13명	
	동북1권 통합 워크샵	11월 14일 10:00~13:00	한양대학교 국제관 라운지108	18명	

2) FGD 진행 결과

가) 진행 개요

○ 참여대상 및 규모

- 동북1권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개인활동가 또는 조직에 소속된 활동가)
- 각 자치구별로 5명 내외 인원 모집 (연령/성별/의제별로 다양하게 구성)

○ 진행방식

- 각 자치구별(광진구/동대문구/성동구) 따로 진행하여, 해당 지역 활동가 의견을 집중

적으로 확인

- 논의 주제에 대한 참여자 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 및 핵심 키워드 도출
- 진행시간: 약 1시간 30분 ~ 2시간 내외

○ 진행내용 (논의주제: 지역 및 시민사회 현황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 활동가들이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특징
-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등
- 해당 지역의 의제/이슈(기존, 신규)
- 활동가들의 활동 동기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니즈(우선순위 등)
- 지역 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및 의견(우선순위 포함)
- 동북1권 NPO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나) 성동구

○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동구는 어떤 동네인가요? 성동구만의 특성을 알려주세요.

- 시골스러운 정이 살아있는 동네다.
- 90, 00년대에 발전이 이루어져서 공간과 사람들이 많이 바뀜
- 토착민들이 외지 출신 사람들을 많이 배척하고 갈등이 많음
- 성동구 여론은 아직 토착민들의 관점이 지배적이다.
- 외지 출신 사람들은 교육 및 생활 수준이 기존 토착민과 달라서 지역 소속감이 낮다.
- 일부 지역(송정동, 사근동 등)은 성동구 내부에서도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열악하여 불만이 많다.
- 외부 요인(재개발, 도시계획)에 의한 변화에 맞춰 외지인 위주의 행정이 발전했다.
-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곳이다. (주거지가 비싸다, 일자리가 없다)

○ 실제 활동하면서 성동구 주민들의 성향은 어떻다고 느끼셨나요?

-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고 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곳이기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행정 주도 정책에 지쳐서 의욕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

- 50대 이상 시간과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참가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4050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 오고 있다.
- 노인들을 위한 네트워킹(예: 사근노인복지센터 청춘클럽)이 활성화되고 있다.
- 아직 활동에의 유입은 적고 유입되더라 실망하고 이탈하는 사람이 많다.
- 청년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활동가)이 많은 편이다.
- (경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문화가 있는 것이 신기하다.
- 공익활동 참여율이 높다. 자원봉사활동도 많다.
- 진입장벽을 낮추면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 활동가들의 활동환경은 어떻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성동구 내 활동가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다.
- 활동가의 개념이나 범위가 없어 정체성 혼란이 생기고 경력 증명이 되지 않는다.
- (중간지원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업무)영역을 벗어난 활동에 제약이 많다.
- 활동가의 혜택이 없다.
- 활동가(혹은 그 수혜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 활동의 기반이 될 안정적인 공간이 없다.
- 급여, 직업 안정성 등 고용 지표들이 안 좋다.
- 여러가지 이유로 (동료, 선배, 후배) 활동가들이 자주 이직하게 되어 활동의 지속성과 후배 양성 능력이 떨어진다.
- 활동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 신규 활동가 유입이 없거나 알 수 없고, 공모사업수익에 관심있는 사람만 더러 있다.
- 자원봉사를 통해 신규 활동가를 모색해야한다.
- 마을 활동에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향후 10년동안 성동구의 공익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 현물.
- 공간 확보 위한 자산화 혹은 수익 사업
- 일일호프를 포함한 기금 모금 활동
- 사업 비용 지원
-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 보장
- 주민권한의 확대

- 민간단체들의 연합체
- 인식의 변화
- 대학생, 시민 사회와 사회단체와의 연결 및 교류

○ 동북1권 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게 좋을까요?

- 지역이 자치구에서 동으로 세분화되는 가운데 권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추세에 역행한다.
- 서울시(권역단위)와 자치구가 협조해서 지원해야한다.
- 비영리 기관에 대한 방향 제시, 조직 컨설팅, 법률 지원 등이 있어야한다.
- 지원, 공모사업들은 복지재단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이니 안 했으면 좋겠다.
-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을 흡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NPO파트너페어가 권역별로 열렸으면 좋겠다.
- 청년 등 신규 주민, 활동가들의 발굴과 양성, 성장 지원.
- 민간네트워크가 관에서 독립하여 동등한 위치가 되도록 지원해야한다.
- 광역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간(間), 내(內) 활동 융합.
-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욕구를 통해 만들어져야한다.
-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주도로 만드는 것이 빠름
- 기존의 활동이나 성과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음
- 또 행정처럼 일을 벌리면서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지역 내 NGO, NPO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인식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 자치구와 접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어떤 게 있나요?

- 행정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잘함
- 소극적이고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함
- 거짓말하고 배신한 경우가 많고, 갑질도 심함
- 구민 30만명에 대한 성과에만 너무 몰두해서 민간과 관점이 다름
-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행정 중심으로만 사업을 진행함
- 행정간의 칸막이가 너무 많음
- 사업별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서 정책 지속성이 없음
-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성을 확보함
- 성과를 잘 포장함
- 다양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활동가와 주민들을 지치게 만들



〈성동구 FGD 진행 사진〉

다) 광진구

○ 광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 문화 등 전반에 대하여) 행정, 정책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변화하는 시기이다.
- 30년 넘는 활동으로 시민사회 역량이 강한 편이다.
- 삶의 터전이다.

○ 시민들의 활동과 참여도가 늘어나고 있는지, 주로 활동을 한다면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 교육참여, 자원봉사 등)

- 프로그램, 축제 등 채널이 늘어나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 보조금 사업 등 1차적 참여에만 그치고 활동가로 조직화되고 있지 않다.
- 너무 많은 채널 증가로 주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 주민자치회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가 주차장, 쓰레기, 센터 운영 등 일부 분야에만 국한되고 있다.
- 교육기관이 없어 주민참여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

○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서 광진구 주민들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 노년층이 많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 청년들의 활동가로의 유입이 없다.
- 청년들 유입을 위하여 유인할 메리트를 만들어야 한다.

- 향우회 발전으로 지방색이 강하다.
-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

○ 광진구에서의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나 의제들과 활동들이 기억나시나요?

- 1980년대: 6월 항쟁 이후 학생운동 출신들이 현장으로 투신하여 노동조합(제화, 금속, 인쇄) 설립, 노동운동, 노동운동 지원활동(노동자 야학, 문화, 보건의료 운동)이 활발했다. 또 옥수금호행당 재개발로 빈민운동을 지원하는 교회들(성수교회, 삼일교회)도 활동했다.
- 1990년대: 지역(주민)운동 정립기로 민주노총 합법화로 노동운동단체들이 새로운 지역운동 형태로 통합되었고 지역적으로는 90년대초에 성동민주단체협의회가 생기면서 16개 단체가 만들어졌다.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성동-광진민주단체협의회로 바뀌어 성동은 노동, 빈민 중심으로 재편되고, 광진은 지역운동, 보건, 주민참여, 풀뿌리민주주의 등으로 집중했고 성동-광진민주단체협의회는 1999년에 발전적으로 해소되었다. 당시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던 단체들은 성동주민의원, 일하는청년회, 내일을위한지역환경연구소, 민주시민회, 동부문화센터, 새날교육센터, 노리패'울력', 광진복지센터 등등이 있었다.
- 2000년대: 단체들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조직화되어 생활 밀착형으로 분야별로 분화되었고,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복지네트워크 등이 생겨났다.
- 2010년대: 지역공동체활동의 재구성 시기였다. 시민사회, 복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교육, 청년, 주거, 복지, 50+, 여성 등의 주제로 16 17 18년 거치면서 광진시민허브에서 민간 네트워크 중심 기반의 활동들이 중심이 되었다.

○ 의제나 활동들 봤을 때 아쉬운 점이나 광진구의 자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공론장, 포럼, 행정감시 등 지역주민참여는 활성화 되어있다.
- 주민 조직하는 주민운동은 크게 자라나지 못 했다.
- 의제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활동가 혹은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한다.
- 옛날부터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 교육, 여성, 노동분야 등에 대한 균형 발전이 부족하다.
- 단체들이 외부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교육이 필요하다.

- 새로운 조직이나 의제를 가지고 있는 최근 3, 5년 내에 새롭다,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고령화에 따라 50+ 등 노년층 대상 의제가 증가할 것이다.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 주민자치회가 중요해질 것이다.
 - 아차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 향후 광진구 시민사회의 10년간 예상이나 생각해본 미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국가 기능의 회복으로 시민단체의 역할과 임무는 변경, 축소 될 것이다.
 - 주민 참여와 권한 확대로 시민단체가 확대될 것이다.
 - 시민자산화와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활동가들의 기반을 만들어줘야한다.
 - 시민사회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행정과의 조력적 관계를 구성할 것이다.
 - 행정에서는 시민사회에 위임한 권한에 간섭하지 말고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 NPO지원센터는 사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한) 활동가들의 행정 정책분야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 제도적으로 공무원 특채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많아져야 한다.
 - 사회적 필요에 따라 환경 운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 광진구 활동가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지, 활동가라는 직업이나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 광진구는 앞서 고민해본 선배 활동가들이 많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배우기 좋은 곳이다.
 - 광진구라는 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위압감도 느껴졌다.
 청년이라서 기대나 압박이 있어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나가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사회 소수가 너무 강력한 주장을 하여 함께 살아가는 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 활동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하고 싶은 공익활동 대신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들이 우선시된다.
 - 지역사회의 시민기금 통해 활동가들의 비상기금과 여건 개선을 해결해야 한다.
 - 시민자산화와 시민기금 통하여 활동가들의 주거, 업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공익과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생명과 안정은 국가 체제가 보장해야 한다

다.

- 기업복지처럼 활동가들도 저녁 있는 삶처럼 여행, 문화와 근로에 대한 복지가 있어야 한다.
- 동료 활동가들과 공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사명감이 뚜렷하여 동기부여가 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은 참을 수 있다.
- 활동가들의 여건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다.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삶, 활동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도 괜찮습니다.

- 의제별로 양질의 내용과 강사를 갖춘 교육기관을 통해 활동가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 사업 위주 지원보다는 새로운 활동가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인건비 문제를 시민들의 모금활동에 정부에서 매칭하여 지원하면 좋겠다.
- 활동가들과 단체들에 대한 홍보로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안산의 사례처럼 주민모금액은 갑작스러운 의제 발생에 따른 비상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 권역NPO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기능이 제공되어야 할까요?

- NPO지원센터는 필요하지만 자치구가 아니라 권역단위로 나뉜 것이 아쉽다.
-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활동가의 삶 지원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끔 지원하면 좋겠다.
- 자치구별로 특성이 다르니 활동가들의 협의체적 소통 역할이 중요하다.
- 철저하게 '지원기관'으로써 주목적사업 없이, 실무자 없이, 지역기관에 위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광진구 지자체와의 협업 활동에서의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들을 파트너로 보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는다.
- 자치구와의 거버넌스, 협치, 대화, 협력사업은 너무 어렵다.
- 기존 행정가들보다는 젊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다르니 팀장급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

- 활동가로서 광진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기와,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삶의 고향이 이곳이고 앞으로도 고향에서 일을 찾을 것이다.
 - 가난한 사람이 있는 한 활동할 것이다.
 - 주민들에게 존재감이 생기고 삶의 방향과 일치하면 계속 활동할 것이다.
 - 열려있고 존중해주는 조직에 있기에 일할 가치가 있다.



〈광진구 FGD 진행 사진〉

라) 동대문구

- 동대문구의 지역 특성, 다른 자치구와는 다른 점들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동대문구는 최근 10년간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다.
 - 학생, 상업지구 등의 특성으로 재개발 후 단독주택 대신 원룸 위주로 재편성되었다.
 - 시대적 흐름에 따라 후원이 줄어들고 시민단체의 임무가 축소되고 있다.
 - 청년은 많지만 청년활동가와 청년지원은 없으며 네트워킹이 되지 않고 있다.
 - 자원이 많고 동대문구 동네 별로 특성이 두드러진다. 표준화시킬 수 없다.
 - 구청장이 장기집권 중이라 혁신과 성장동력이 없고 구청 공직자들도 비슷하다.
- 최근 주민 참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어떤 활동들을 위주로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가 늘었지만 목적 없는 참여에 그치고 있다.
 - 시민단체들간 합의 없이 각 집단을 위한 사업 위주로 활동한다.
 - 민관협치(건강생태계 등)에 참여를 많이 한다.

- 도시재생에 참여를 많이 한다.
 - 사회적 경제에 참여를 많이 한다.
 - 동네에 살지 않는 생활주민(학생)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 학교가 많아 교육 공동체 활동에 참여도가 높고 성장하고 있다.
- 동대문구에서 이루어졌던 의제들을 봤을 때 매우 좋았거나 아쉬운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 민간 네트워크들이 쉽게 무너진다.
 - 청년 활동가들이 없고 유입되더라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만 관심을 가진다.
 - 사업보조금 덕분에 꾸준하게 사람들이 모였다. 지속적으로 재원 마련해야 한다.
-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동대문구 대표 시민단체 2개가 잘 이끌고 왔으나 서로 협력한 경험이 없다.
 - 활동가들의 유입이 적어서 활동하기 어렵고 협력할 여력이 안 된다.
 - 후원금으로 운영하여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원하는 활동이 어렵고 재원출처의 간섭을 심하게 받게 된다.
 - 활동가들이 공익활동 외에도 개인 생계를 위한 활동까지 하기에 부담이 크고 신규 활동가 유입도 어렵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 자치구와 협력사업 경험이 있으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가 낮고, 협치 수준이 낮으며 소극적이다.
 - 서울시나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자치구 공무원들보다 이해도가 높다.
 - 동대문구는 언제나 동일한 단체와 창구들을 통해 사업들을 진행한다.
 - 동대문구 공무원들은 민간 영역이 행정 영역 방식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민간 영역에서도 단결이 잘 안 되고, 콘텐츠나 내용 생성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 최근 5년내에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무엇이 있나요?
- 시민단체 개개의 의제 위주로 활동하며 공통의 의제는 없다.
 - 서울시 흐름(중간지원조직)에 따라 의제가 정해지고 있다.
 -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야 하지만 역량이 부족하여 중간지원조직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 (서울시) 예산이 사라지면 의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시민단체 대상 사업이 5년은 지속되어야 사업을 운영하고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다.

○ 향후 10년 동안 동대문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할까요?

- (동대문구 혹은 동북1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활동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주민자치.
- 예비 활동가들의 관심과 밀접한 의제가 무엇인지 연구해봐야 한다.
- 동대문구 활동가로서의 자부심을 만들어줘야 한다.
- 시민단체들의 자치구 내, 자치구 간의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

○ 권역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까요?

- 시민단체들의 자치구 내, 자치구 간의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
-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서포트만 하는 정체성을 지녔으면 좋겠다.
- 신규 활동가 발굴, 양성하고 신입 교육, 보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가이드북, 매뉴얼도 작성하여 진입장벽을 낮춘다.
- 회계 등 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처리하기에 어렵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대행하여 주요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 기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대한 지원 역할.
- 활동가들의 처우 보장.
- 인건비로 직접 지원.
- 기업, 국제기구 등 시민단체 펀딩 정보 창구와 펀딩 위한 도움 제공
- 청년수당처럼 활동가수당 지원.

○ 나는 무엇 때문에 활동가로 생활한다, 왜 활동가인가라고 여쭙본다면?

- 조금이라도 주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었다.
-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없다.
- 자기위로 행위다.



〈동대문구 FGD 진행 사진〉

3) 동북1권 통합 워크샵

가) 진행개요

○ 참여대상 및 규모

- 동북1권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개인활동가 또는 조직에 소속된 활동가)
- 각 자치구별 FGD에 참여한 인원과 그 외 추가 인원 포함하여 약 15~20명 내외

○ 진행방식 및 내용

- 진행내용

일정	순서	내용
9시 30분 ~ 10시	참여자도착/인사나누기	- 자유롭게
10시 ~ 10시 15분	아이스브레이킹	- 자치구별로 그룹 형성 - 워크샵 진행내용 안내
10시 15분 ~ 10시 45분	동북1권 현황조사 결과 공유	- 연구진 발표 및 질의응답
10시 45분 ~ 12시 30분	집단 토론 및 워크샵	아래의 질문 내용에 대해 키워드 중심 정리 1) 동북1권 의제 찾기 - 우리 지역에서 다루고 있는/다뤄야 할 의제는 무엇인가? - 동북1권 차원에서는 어떤 의제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2) 동북1권 자원 찾기 - 우리 지역 내의 시민사회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 동북1권에서 각각의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3) 권역NPO센터의 역할 - 권역NPO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12시 30분 ~ 12시 5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자유롭게

-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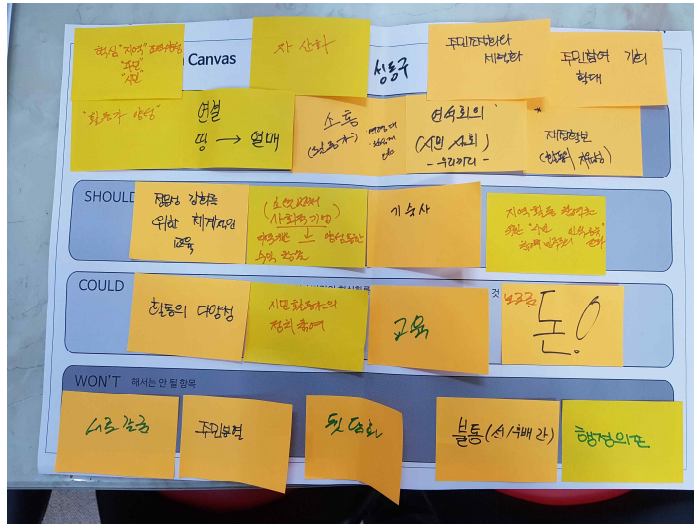
구분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합계
인원수	8명	8명	2명	18명

나) 결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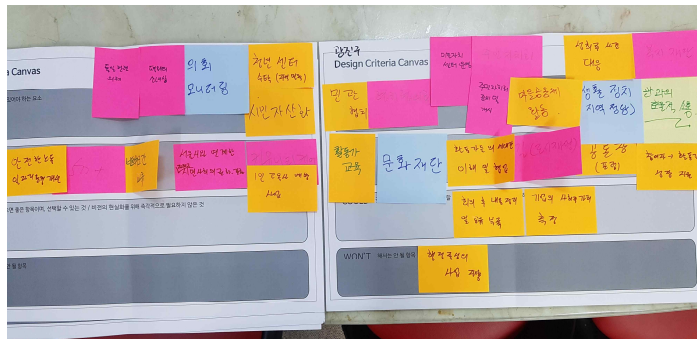
○ 전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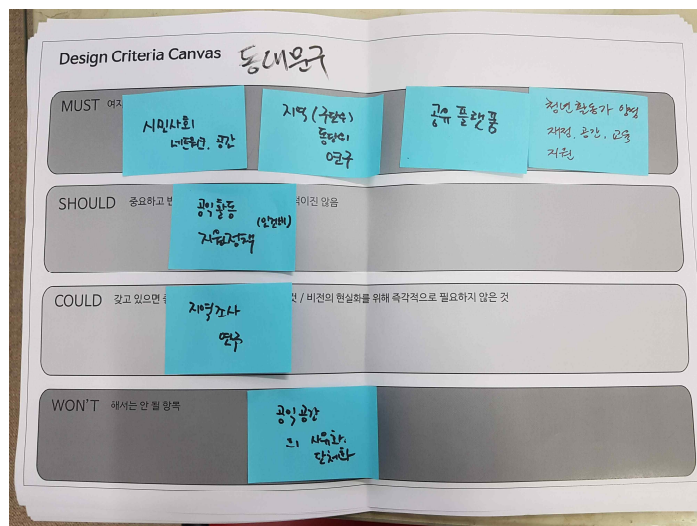
○ 동북1권 의제찾기



<성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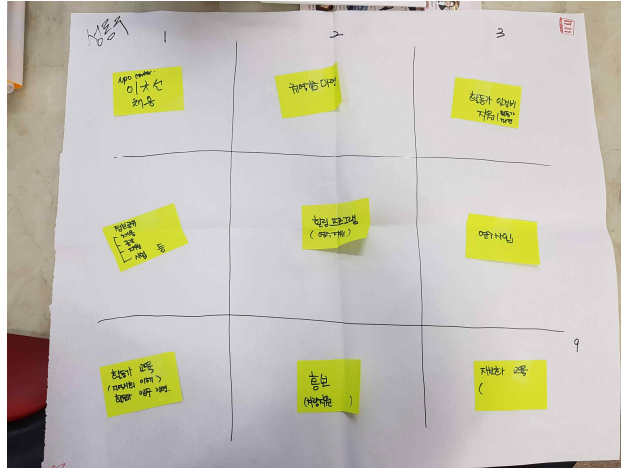


<광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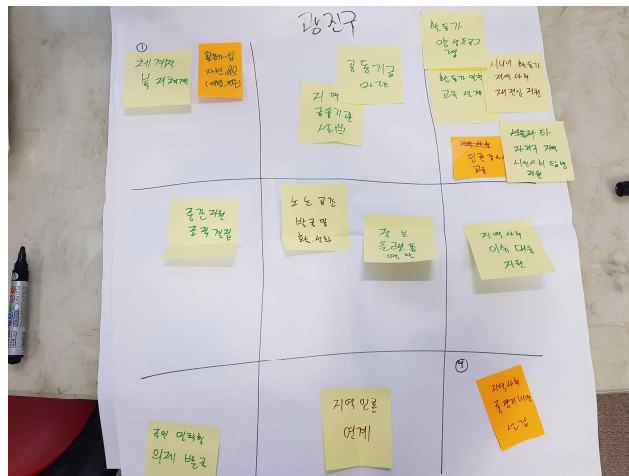


<동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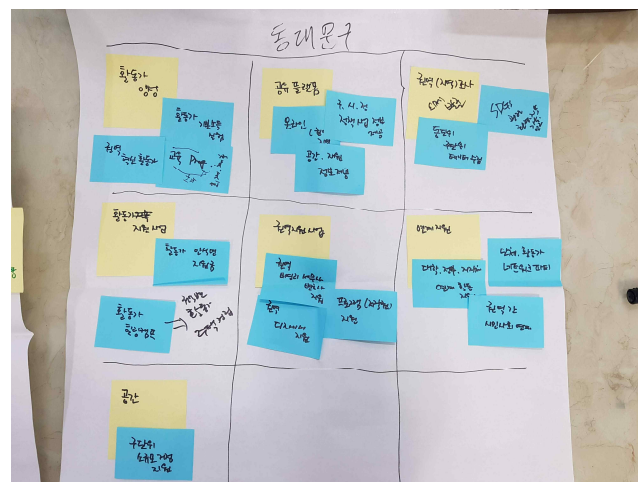
○ 권역NPO센터의 역할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2019년

동북1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발행일 2019년 11월 29일(SNPO 2019-B-009)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 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 화 02-734-1109

전 송 02-734-1118

메 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 NO - ND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